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역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人類)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教育)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요즈음 말하는 교육의 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절차나 형식을 통한 가르침은 없었을 것이고, 단순한 본능적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무엇이든 보고 반복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발전해 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차츰 모든 위험에 대처하게 되는데 이때 단결의 필요를 느껴 가족·씨족으로서의 결합이 요청되었고, 개인은 집단을 순화, 적응시키는 것이 의도적(意圖的)인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개인을 자신과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 단체의 테두리 속에서 길러가야 한다는 제도적 교육이 집단을 터전으로 조직적으로 발전되어 나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신석기와 청동기시대의 정점으로 접어들면서 교육의 형태도 두 가지로 분화의 조짐이 보이게 되었다.

문자(文字)가 없던 원시사회에서는 교육이 인위적(人爲的), 조직적(組織的) 교육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自然的)인 생활환경 속에서 터득하는 제반 인습(因襲)의 모방과 답습(踏襲)이 실제적인 교육의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분화의 조짐은 첫째로 보이는 사물에 관한 교육형태로 실제분야의 교육이었고, 보이지 않는 사물에 관한 교육으로 후일 이론(理論) 교육으로 불리는 분야였을 것이다.

당시의 이론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가 정신적이고, 보이지 않는 힘이나 두려움에 관한 것은 바로 그들의 첫째 목표인 안전(安全)을 꾀하는 실제적인 노력과 결부되고 응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행해진 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신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훈련

둘째,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는데 필요한 예전(禮典)·의식(儀式) 등의 훈련

셋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화있는 생활에 필요한 관습(慣習)·금기(禁忌)·억제(抑制) 등의 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소년들은 수렵·경작·전투를 배웠고, 여기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며 다루는 방법을 익혔다. 이러한 작업은 그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어서 모방과 반복으로도 대개는 배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 교육은 일반적으로 가족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소년은 부친을 본받고 소녀는 모친을 모방함으로써 앞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의무를 배웠다. 그것은 바로 양친의 지식기능(知識機能)의 충실한 전달이었으며, 변화라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으니 부모와 같은 수준으로 배웠을 때는 학습이 끝나는 것을 뜻했다.

한편 이러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점차로 전문적인 분야가 천천히 움트기 시작했는데 집단내의 특징인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한가지 일을 훨씬 더 잘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를테면 우연이든 시행착오든 간에 이전과는 다른 물품이나 도구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러한 비결이나 비법(秘法)을 자신만이 간직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자녀에게만 이를 전할 만큼 영리하였다.

한편으로는 타인에게도 알려 주어 드디어 인류의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라는 계기가 움터났고, 전문화된 기술지식의 구체적인 전달이라는 계기는 후일의 의도적·형식적 교육을 구체화시켜 갔다. 특히 이 시기는 지난날의 가족단위의 관습은 종족으로 확대되었고, 드디어 종족의 관습은 사회가 지녀나가야 하는 상속의 규범이 되었다.

예배(禮拜) 행위는 가족 결합을 위할 뿐 아니라 종족의 결합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이러한 결합의 강화는 종족의 우두머리가 차츰 의술을 비롯해서 제전(祭典)을 주관함으로써 세속적인 통제력 뿐 아니라 후일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영혼에 관하여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필연적으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일반 지식으로 전수되고 특정 후계자에게만 계승되었다. 이러한 종족, 혹은 씨족 단계의 제정일치(祭政一致)적 통합형태는 씨족권의 확대와 함께 부족연합에서 천천히 왕권 단계의 변화를 부르는 과도기적 기간에 이루어졌다.

첫째, 특정한 사실에 대한 일정한 체계화의 구성

둘째, 의도적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탄생

셋째, 이와 같은 행위를 기록하고 전할 언어 문자의 발달

사회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체계에 있어서도 최초의 의도적인 교육제도의 출현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고대 씨족의 습성은 기원 3세기경에 쓰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등에 그 단편들이 실려 나온다.

이때는 거의 농경 정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그때까지도 강력한 집권적·정치적 조

합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 같다. 즉 위지동이전에는 “그들의 풍속에는 법규는 적지 않으나 수도(國邑)에는 주사(主師)라고 부르는 이가 있으며, 마을에 함께 살면서 서로 견제하며 지낸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많은 부족집단들이 연합한 형태로서 그 족장의 권위는 왕권국가와 같은 강력한 단계는 아니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들 고대 한족(韓族)에게는 일견 전사단(戰士團) 같은 청소년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가(官家)를 중심으로 성곽을 쌓으며, 연소(年少)하고 용감한 자는 모두 등가족에 큰 새끼줄을 얹어맨다(후일의 지계를 추측함). 또한 굵은 막대기로 이를 뚫고서 종일 큰소리를 내면서 돌을 쌓는다.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않으며 모두 즐겁게 일한다.”(위지동이전)

또는 모든 소년들이 특정한 막사에 모여 앞에서 묘사한 그러한 방법으로 종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걸어 다닌다든지 그것을 보고 용감하다고 한 것 등을 미루어서 이는 당시 행해졌던 일종의 성년식의 훈련 행사로 행했던 강렬한 고행(苦行)의 모습을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원시시대의 유습인 가혹한 의식적 행사들은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라의 화랑도와 같은 조직으로 변형되어 갔을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해동석사(海東釋史)> <물산지(物産志)> <식화지(食貨志)> 등에 실려 있는 “진한(辰韓)은 철이 나서 한(韓)·예(濊)·왜(倭)가 사다 썼고, 또 이군(二郡)에도 공급하였다.”, “진한은……모든 시매(市買)에 철(鐵)을 썼으니, 중국에서 돈을 쓰듯 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이미 이 시기는 철을 사용하는 금속문화가 발달되었던 것으로 보겠다.

역시 해동석사에 실렸다는 <예지풍속지(禮志風俗志)>에는 “진한은 시취(媿娶)에 예가 있고 행로(行路)를 서로 사양하였으며…”, 또는 “…… 진한의 무문철전(無文鐵錢)이 있고”, “진한은 보전(步戰)을 잘 하였고, 병기는 마한(馬韓)과 동일하였다.” 등의 기록들로 미루어서 기원 전후로 해서 이 지역에도 역사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때까지의 조잡하고 어리석었던 수준을 벗어나서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주생활 형식의 지역적 결합으로 옮겨가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과 계급적 형성이 이루어지는 원시 부족사회에서 부족국가 형태로 옮겨 갔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은 모권시대를 거쳐 물질생활의 변천에 따라 남자 중심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군혼(群婚)의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언어 속에도 모권숭배의 흔적이 있으므로 고대사회가 모계 중심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부권중심이 되면서부터 씨족에 대한 방위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남성이 가장적 존재가 되고 밖으로 자기 영토권 보호를 위해 남자가 책임지는 의무를 맡게 되

었다. 원시시대 즉, 삼국시대 이전에는 생활을 위한 지식, 기술의 전승과 신앙심으로 종교적 행사의 전수와 종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전쟁이 교육의 형식으로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며 생활에서 얻은 경험에 의한 예시의 실제 교육이었다면 종교적 관념에 의한 의식(儀式)에 대한 반복 교육, 신체단련을 위한 실체교육, 농경을 위한 기술교육, 경천사상(敬天思想)에 의한 정서교육 등이 두루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앞서 고조선의 건국을 다룬 단군신화(檀君神話)에는 “환웅(桓雄)이 신시(神市)를 베풀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환웅은 이 “홍익인간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농경사회와 관계되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등에게 모든 일을 맡겨 교화(教化)를 하였다” 했으며 곰과 호랑이를 인간으로 화신(化身)시킨 것 등은 모두 교육적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삼국지의 위지동이전에는 조선의 왕 준(準)이 망명한 위만(衛滿)에게 박사(博士)직을 주어서 서쪽 변방을 방비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위만에게 내린 직종은 필시 교육직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 교육법 제1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具有)하게 하여 민족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조선의 개국이념이 곧 교육의 이념에 일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여(扶餘)나 옥저(沃沮) 동예(東濊), 삼한(三韓) 등 고대의 부족국가들은 고대국가사회의 국가형성을 거의 완비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계급이 분명하였으며 지배계급의 윤리관념이 뚜렷이 형성되고 있던 사회였다. 때문에 이 윤리관념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고대사회의 공동된 관념으로 나타나 있는 경천사상은 부족국가의 공동의식으로 행해진 제천의식과 그에 따른 가무(歌舞)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교육적 실천이 다분히 주술적(呪術的) 신앙(信仰)과 관계가 깊었는데 나라의 중대사나 민간행사에서도 반드시 제시받아 그에 의해 행사를 진행했다.

예컨대 소의 발굽, 별 등을 통해 길흉사(吉凶事)를 점친다거나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결행하는 가치판단의 기준 등은 고대사회 사람들의 윤리관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박물지(博物誌)에는 부여와 진한에 문자(文字)가 있어 횡서(橫書) 또는 좌서(左書)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만일 이때에 문자가 있었다면 고대사회의 교육을 밝혀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人間愛)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상대편 인간에게 영향

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가치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기능이므로 인간 사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기능으로서 무릇 사회생활이 있는 곳에는 교육기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 까지 행하여 온 작용으로서 사회가 있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이다.

나. 삼국시대의 교육

1) 개관

삼국시대 이전의 교육은 다른 나라의 고대 사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활이 곧 교육이고 역사라고 하는 자연적인 교육이 행하여졌으나 삼국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의도적인 학교교육이 나타나게 되었다.

삼국사기에 있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다”라는 기록은 한국교육사에서 학교교육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고구려보다 310년 늦게, 삼국통일 후인 682년(신문왕 2년)에 국학(國學)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즉, 신라는 개국 뒤 739년 만에, 고구려는 개국 뒤 409년 만에 학교를 세운 셈이다.

삼국시대 전 역사를 통하여 사상적인 주류를 이룬 것은 불교(佛敎)였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당(唐) 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한학(漢學)을 가르쳤다. 더욱이 신라가 당의 세력을 빌려 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당에 유학생이 왕래하여 유학사상(儒學思想)이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라에는 진흥왕 때에 유(儒)·불(佛)·선(仙) 3교를 조화하여 조직한 화랑도(花郎道)가 있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통일 뒤에는 유교교육에만 치중하여 그 고유의 특성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문자(文字)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처음 사용한 문자는 아마 부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던 문자를 전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자의 전달과정이란 곧 학교교육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화된 학교교육이 등장하는 것은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인접한 국가로부터 전래된 문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삼국시대란 시대적 배경은 정복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였으므로 필경 여기에 대처할 전사(戰士)의 양성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또한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官僚的)인 정치체제와 계급제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교육제도 역시 다분히 중앙집권적 계급방식이었다. 따라서 교육의 실제적 가치는 피교육자의 인격함양이나 사회봉

사의 기능보다는 계급적 지위와 지배계급 또는 귀족으로서의 소양(素養)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 밖에 또 하나 이 시대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불교를 들 수 있다. 불교는 왕실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국가적인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뒤에 삼국문화(三國文化)의 찬란한 꽃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정신면은 물론 사회봉사라는 불교관의 확립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충분히 거두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 시대에 도입된 유교는 우리나라의 정치면을 비롯하여 정치, 윤리면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자(漢字)의 수입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발전, 또한 교육전반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발전한 삼국시대는 유교정치 사상의 발전으로 마침내 학교교육의 문을 열리게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태학, 경당을 설치하고 백제, 신라도 비슷한 교육기관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며 삼국이 모두 관리와 인물의 양성을 위해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어 서로 다투어서 새로운 문물(文物)을 배워 오기도 하였다.

2) 삼국의 교육

가) 고구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건국 초기에 이미 문자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자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구려가 처음 쓴 문자는 부여시대부터 있었던 문자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짐작된다. 중국 문화와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상용하게 된 것은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이전의 일이었을 것이며, 최초의 학교 출현도 문자의 사용과 거의 때를 같이 했으리라고 본다.

학교설립의 최초의 기록은 소수림왕 2년인 서기 372년으로 태학(太學)에 관한 것이다. “왕은 태학을 설립하고 자제를 교육하였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태학은 귀족자제의 교육기관이자 관리양성기관으로서 주로 유교의 경전을 가르쳤다. 오경(五經) 즉, 시경(詩經)·서경(書經)·춘추(春秋)·예기(禮記)·주역(周易)과 삼국사(三國史)·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동관기(凍關記) 등 삼사(三史)를 비롯하여 삼국지(三國志), 진춘추(晉春秋)가 주된 것으로 보아 중국인이 태학에서 가르쳤던 다른 서적 즉, 역서(歷書)·의학(醫學)·산학(算學)·악서(樂書)·병서(兵書) 등도 대상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태학이 관학(官學)인데 대하여 사학(私學)의 시초라고 생각되는 경당이 있었다. 5세기 이후의 고구려 교육을 알려주는 <구당서기사(舊唐書記事)>에 나오는 이 경당은 본래 고구려 사람들의 풍습이 서적을 사랑하였으므로 민가나 목축업자들의 마을에 큰 집을 지어

만든 학교였다.

경당은 마치 서양 중세기 평민과 승원(僧院)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초등학교 정도로부터 대학 정도에까지 걸친 교육기관이었다. 일반 평민과 지방부호의 미혼 자제들이 입학하여 이곳에서 독서와 활쏘기를 배웠으며, 교과서로는 오경·사기(史記)·한서·후한서, 삼국지·춘추·옥편(玉篇)·학통(學統)·학교(學敎)·문선(文選) 등이었는데 그 중 문선(文選)을 애독하였다 한다.

아울러 무예도 가르쳐 충효교육과 상무(尙武)교육도 함께 길러 주었으며, 교육사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일반 대중에게 사학(私學)이 보급되었고,

둘째, 교육이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변하고 있었으며,

셋째, 국내의 정세에 맞추어 문·무 일치의 교육을 겸하여

넷째, 교육의 범위가 넓고 높아 초등에서 고등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이다

나) 백제

백제(百濟)는 서기 663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교육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없으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유교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유학(儒學)을 전하여 비조문화(飛鳥文化)를 이룬 것은 백제교육에서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이왕(古爾王) 25년(258) 박사 왕인(王仁)으로 하여금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千字文) 1권을 전하였다고 하며, 근초고왕(近肖古王) 29년(374)에 고옥(高潘)을 박사로 삼아 서기(書記)를 짓게 한 사실과 또 무릉왕대에 이르러 오경박사(五經博士) 은양이(殷楊爾)·고안무(高安茂) 등을 또 성왕(聖王)대에는 왕유귀(王柳貴)·왕도량(王道良) 등을 일본으로 보내어 그 땅에 싹트는 문화를 북돋워 준 일이 있고, 성왕 원년(523)에 양(梁)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모시박사(毛詩博士)를 청하여 왔고, 무왕(武王) 3년(602)에 승(僧) 근록(勤勒)이 역서(歷書)와 천문(天文) 등의 서적을 일본에 전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고구려의 태학에 버금갈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경박사는 오경에 능통한 자의 이름이요, 모시(毛詩)는 시경에 밝은 사람의 이름이니 이들이 교육을 행하였을 것이다. 백제는 건국 초부터 왕실이 국가 건설의 중심이 되어 있었으므로, 전시에는 왕 자신이 무인으로 진두(陣頭)에 나서서 솔선수범으로 지휘하였고, 관제(官制) 중 11품이 교독(交督), 12품이 무독(武督)으로 이들은 각각 문무를 다스리던 벼슬이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백제에서는 문무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충효가 핵심이 된 경학(經學)을 통한 자녀교육과 유별하는 예속(禮俗)이 이루어져 경로사상이 사회를 정화시켰다고 한다. 백제가 예속이 잘 이루어진 것은 효교육을 통하여 국민정신교육에 힘썼기 때문이며, 의자왕(義慈王) 20년(660)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할 당시에 성충(成忠)·흥수(興首)·계백(階伯) 등 3충신의 충절과 3천여 궁녀의 자결 등은 영원토록 우리의 흥금을 울리는 교훈이다.

또 백제가 망하기 직전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에게 항복한 의자왕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국민들이 자결했다고 하며, 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흥운동을 전개한 일들은 충의교육에 노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충(忠)이란 평소에 교육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짧은 기간의 효과로 생각되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볼 때 백제가 국민 전체에게 충이 몸에 배인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신라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유학(儒學)이 들어 왔으며, 교육도 화랑도교육과 통일신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라 초기 교육

건국(B.C. 57)이후 나물왕(奈勿王 : 356~401)대까지는 천세(天勢)의 간섭없이 자라온 시대라 할 수 있으며, 고구려를 통하여 중국문화를 수입하면서 국가의 기초를 다졌다. 소지왕(炤知王) 1년(479)에는 고구려의 남침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백제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통하여 중국 남부문화를 받아 들였다.

진흥왕(眞興王)은 길러온 국력을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에 대립하는 입장에 섰고,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는 수(隨)나라 및 당(唐)나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고구려·백제와의 예속적 관계를 탈피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며 중국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대라고 보인다

(2) 화랑도 교육(花郎道 教育)

신라의 삼국통일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화랑도 교육이고,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진흥왕(540~576)때 「徒衆雲集惑相摩以道義(도중운집혹상마이도의)」라고 하는 것과 원광법사의 「세속오계(世俗五戒)」에서 국민정신 교육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삼국통일의 원동력을 이룬 화랑도의 기본정신을 효(孝)·제(悌)·충(忠)·신(信)이라고 할 수 있다.

화랑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김유신(金庾信)은 삼국통일의 주역을 담당했

는데 화랑의 정신은 충효가 중심사상이 되어 충(忠)·효(孝)·신(信)·용(勇)·의(義) 등으로 집약된 세속오계에서 국민교육사상이 나왔다고 한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지역적인 관계로 종교 및 사회면에서 그들대로의 특색을 살리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를 조화롭게 발전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라는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애국적인 국민운동이 요구되었다.

이 화랑도는 소년 때부터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나 학교조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법적 기능과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적 기능, 그리고 평화시에는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 단체였다. 즉 나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도(道)를 기르는 단체였다고 한다.

화랑도 교육은 용감한 군인과 실천하는 인물 양성이 첫째였고, 내용적으로는 신라 특유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이 두 번째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는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에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사상과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불교와 도교의 충효를 근간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종교적·도덕적 정신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었다.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인 사군이충(事君以忠)·사친이효(事親以孝)·교우유신(交友有信)·임전무퇴(臨戰無退)·살생유택(殺生有擇)은 위의 내용들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화랑도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면보다 활동적인 인간교육·생활교육·직관(直觀) 교육·정서교육을 중요시하였고, 그 집단 단체가 민주적 조직으로 친화의 소질을 지니고 원만한 인격자의 완전인 육성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철저한 단련으로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실력을 지녀 부귀영달은 꿈에도 두지 않았으며, 언제나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다는 신념이 투철하였다. 게다가 가무(歌舞)와 풍류(風流)를 좋아하여 오늘날 전해오는 몇몇 향가(鄉歌)를 보더라도 “도솔가(兜率歌)·제망매가(祭亡妹歌)”를 비롯한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찬기파랑가(讚者婆郎歌)” 등의 주옥같은 가곡이 많음은 진중(陣中)에서도 항상 여유를 가지며 드높은 사기(士氣)를 북돋았다고 본다.

화랑세기(花郎世紀)에는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배출되고 뛰어난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 고 적고 있다. 이렇듯 화랑도는 신라의 표상(表象)이며 온 신라를 지탱해 온 지주(支柱)로까지 성장하였다. 화랑 출신의 유명했던 사람으로는 김유신(金庾信)장군이 있으며 김흠춘(金欽春), 죽지(竹旨), 사다함(斯多含), 관창(官昌), 원술랑(元述郎), 비령자(丕寧子) 등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었다

다. 통일신라의 교육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화랑도 육성에 힘썼지만, 통일 후에는 국학(國學)을 세웠다. 신라의 통일이 불교의 장려와 유교사상에 있었다고 하나, 중앙집권적인 통일체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유교의 정치이념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고유의 화랑

도 교육이 통일후에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신문왕(神文王) 2년(682년)에 당나라의 국자감(國子監) 체제를 모방한 국학(國學)을 세웠다. 유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세워진 이 국학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유교사상을 연구 보급하는 유학의 전당으로서의 기능과 다른 하나는 유교이념에 입각한 국가 관리(官吏)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능이었다.

설립 초기에는 전자를 위한 교육을 했으나 그 뒤에는 점차로 후자를 위한 교육기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 내용은 역시 유교의 경전(經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논어와 효경(孝經)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예기·주역·좌전·모시·춘추·문선 등을 교육하였다.

국학의 입학자격은 관계(官階)가 대사(大舍 : 12등급)로부터 무위자(無位者)까지의 귀족으로 15세부터 30세까지이며, 재학연한은 9년이었으나 재질을 인정받지 못하면 퇴학을 당하고, 재질을 인정받으면 비록 9년이 지나도 허용 받아 벼슬이 대나마(大奈麻 : 1등관), 나마(奈麻 : 2등관)에 이른 후에야 졸업하게 되었는데, 이들 국학 학생을 사인(舍人)이라 하였다.

경(卿 : 6등관) 1명, 대사(大舍 : 11~13등관)·사·이속(史·吏屬) 각 2명과 박사 조교 등의 교관을 두었다. 국학에는 717년(성덕왕 16년) 광(廣)으로부터 문선왕(文宣王 : 孔子)·십철(十哲)·72제자의 화상(畫像)을 가져다 봉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교교육 기관으로서의 체제를 완비하였다.

경덕왕(景德王)이 태학감(太學監)으로 고쳤다가 혜공왕(惠恭王)이 다시 국학으로 고쳤다. 신라는 이 국학제도(國學制度)가 정착되어 학문이 융성하여짐에 따라 점차 유교교육이 관료화되어 원성왕(元聖王) 4년(788년)부터는 과거제도라 할 수 있는 국가 고시인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신설하여 이들의 성적에 따라 상·중·하 3등과 특 4급(級)으로 나누어 인재등용의 방법으로 삼았는데 이는 곧 유능한 인재 등용이었는데 문·무 교체(交替)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신라의 인재등용 방법은 삼국통일 이전까지는 화랑도 교육으로 인물본위(人物本位)의 교육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이후에는 국학의 교육이념을 따라 학벌주의 시험본위의 교육제도로 전환되었다.

국학을 교육제도로 삼아 실시해 온 통일신라시대에는 유교의 번창과 아울러 불교의 융성으로 수많은 거유(巨儒)와 고승(高僧)이 나와 사회정화(社會淨化)와 교육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이때 나온 몇 사람의 인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강수(強首) : 중원경(中原京 : 충주)의 사랑(事梁) 사람이다. 효경·곡례(曲禮), 이아(爾雅), 문선(文選)에 능통하였고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때 당나라에 가는 국서(國書)를 맡아 왕래하면서 크게 공헌하였다. 이때의 공로로 사찬(沙樹)의 벼슬을 받았다. 그의 이름이 강수(強首)가 된 것은 태종무열왕이 처음 그를 보았을 때에 두골(頭骨)이 뒤로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강수(強首)선생이라 부른데서 생긴 이름이다.
그는 설충(薛聰)과 함께 역(易), 서(書), 시(詩),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 좌전(左傳),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등의 9경(經)으로 국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 원효(元曉) : 진평왕(眞平王) 39년 (671년)에 나서 신문왕(神文王) 6년(686년)에 입적(入寂)한 신라말의 고승이다. 속성(俗性)은 설(薛), 아명(兒名)은 서당(誓幢)이요, 원효는 법명(法名)이다.
시호(諡號)는 화정(和淨), 진덕여왕 2년(648년) 황룡사에서 중이 되었고 2년 뒤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실패하자 분황사에 들어가 불교의 보급에 매진하였다.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라 부르고 속세에 나가 무애가(無寐歌)를 부르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민중교화에 힘썼다. 그는 불교사상의 종합과 실천에 노력한 정토종(淨土宗)의 선구자였다.
당의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을 해독하였으며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등 많은 저서를 후세에 남긴 고승이다.
- 설충(薛聰) : 신라의 석학(碩學) 원효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요석공주(瑤石公主)이고 신라의 3문장(文章) 중 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유달리 총명하여 경사(經史)에 밝았다. 강수(強首)와 함께 9경을 후학들에게 가르쳤으며 이두(吏讀)를 집대성하였고 벼슬은 한림(翰林)을 지냈으며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신문왕을 충고한 일화가 전한다.
- 최치원(崔致遠) : 신라 말의 대학자이다. 호는 고운(孤雲), 시호(諡號)는 문창후(文昌候)이다. 경주 사랑부(沙梁部)에서 나고 12세에 당나라로 유학가서 17세때 과거에 급제하여 선주표수현위(宣州標水顯尉)를 거쳐 승무랑시어사내공봉(丞務郎侍御使內供奉)이 되었으며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황소(黃巢)의 난에 고병(高駢)의 종사관으로 따라 나가 격문을 써서 이름을 날렸다. 돌아와서는 신라의 벼슬을 하고 지냈으며 시무(時武) 10조를 내었다. 말년에 그는 주유천하(周遊天下)를 하다가 해인사(海印寺)에 들어가서 생을 마쳤다고 전한다. 그의 저서로는 사육집(四六集)과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이 있으며 봉안사 비문, 석순응전(釋順應傳)이 있다.

라. 고려시대의 교육

1) 개관

신라의 자멸로 전쟁 없이 평화 속에서 수립된 고려는 신라의 문물제도를 크게 수정함이 없이 계승하였다. 그러나 일찍부터 태조(太祖)는 교육제도에 많은 관심을 써 온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태조 13년, 서경(西京)에 행차하여 학교를 창설하고 수재 정악(廷帽)을 명하여 서학박사(書學博士)로 하였다. 또 달리 학원(學院)을 창설하여 육부(六部)의 생도를 모아 교수하였다. 태조는 흥학(興學)을 듣고 면포(綿布)를 하사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의 교육은 통일신라 교육을 토대로 내적 면에서 불교를, 외적 면에서 유교를 병행하였으며 고려 태조(918~943년)는 불교를 국교(國教)로 하여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고, 정치면에서는 인재 등용을 위하여 유학을 통한 유교사상을 치국(治國)의 이념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원래 유교사상이란 공자(孔子)의 덕치주의(德治主義)로 인의(仁義)를 기본으로 하고 교육사상은 인문주의(人文主義)로 충효·인애·신의·평화의 중화(中華)사상을 건설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사상이 고려에서도 받아 들여졌으므로 후기에는 척불(斥佛)운동이 일어났고, 주자학(朱子學)을 받아들여 성리학(性理學)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조선조까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고려의 교육사상은 태조에서 원종(元宗)에 이르기까지 유(儒)·불(佛) 2대 사상의 지배하에서 발전된 교육사상과 충렬왕(忠烈王) 이후 주자학의 유입으로 교육사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태조의 십훈요(十訓要)에서 “아국가대업(我國家大業) 필자제불호위지력(必資諸佛護衛之力) 고창선교사원(故創禪敎寺院) 차견주지범(差遣住持梵) 수각치기업(修各治其業)”이라 하여 국가의 대업은 제불호위에 의한 것이므로 선교(禪敎)의 사원을 짓고 주지를 과유하여 분수수업(梵修修業)할 것을 밝혔다. 또 “천하학교(天下學校) 위선조술(爲先祖述) 요순지풍(堯舜之風) 사수주공지도(事修周孔之道)”라 한 것으로 보아 유학도 크게 장려하여 고려사회의 2대 주류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아 유학사상이 서로 합쳐지면서 고려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육사상은 선성선사(先聖先師)의 문묘(文廟)를 중외학교(中外學校)에 두고 봉사(奉祀)하여 인격을 이념화하고 유학의 핵심사상인 인(仁)의 근본을 효라 하여 윤리적 이념을 지향했으며, 유교적 도덕으로 국민을 감화(感化)시켰다.

고려 말기의 교육사상은 주자학의 전래로 성리학이 전파되었는데 성(性)이란 물질

이 아니고, 하나의 영체(靈體)이므로 적연하동(寂緣下同)하고 보대청명(寶大清明)하여 천지를 비추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설이다. 이러한 주자학을 전래한 자는 안향(安珦)인데, 그는 충렬왕 11년에 제학(提學)으로 왕을 따라 원(元)에 갔다가 주자전서(全書)를 보고 공자와 주자의 상(像)을 그려가지고 온 것이 시초이다.

안향(安珦)은 주자학에 교육사상을 두고 “공자의 도를 배우려면 먼저 회암(晦庵)을 배워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권했으며, 만년에는 주자상을 걸어 놓고 항상 경모하고 호(號)를 회암(晦庵)이라 하였으며, ‘불교란 의(義)를 어기어 이협(夷狹)의 류(類)’라 하면서 반불(反佛)사상을 부르짖었다.

더욱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등이 성리학을 강구하면서 배불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불교식의 애장(哀葬) 제의(祭儀)의 의식을 버리고 주자 가례(家禮)의 유교식 의례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유교식 생활양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조선시대까지 전하여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고려 말에는 주자사상인 성리학이 학교교육의 이념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유교사상이 정신면과 생활면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고려시대의 학교제도는 태조 13년(930년)에 서경에 경학(京學)을 세웠고, 992년(성종11년)에 국자감(國子監)을 창립하였으며 문종 7년(1053년)에 사학(私學)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최충(崔沖) 등 12인이 사설의 학당을 개설하여 소위 사학십이도(私學十二徒)를 이루게 되었다. 1271년(원종 12년)에는 동서학당(東西學堂)을 세웠다. 지방에는 이와 대등한 향교(鄕校)가 있었으며, 국자감과 향교에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문선왕묘(文宣王廟)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학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이 있었다.

특기할 것은 중국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광종 9년(958년) 과거제를 실시한 일이다. 과거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학이 일어나게 되었고 대유학자나 대정치가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과거를 위한 시험 준비에만 급급하여 뒷날에는 과거제도의 폐해도 크게 나타났다.

2) 문교정책

앞에서 기술했듯이 고려시대의 학교는 태조 13년(930년) 서경(평양)에 처음 설치되었다. 태조가 평양을 순찰할 때 그 곳에 학교가 없음을 보고 정악(廷帽)을 서학박사로 삼고, 서경에 머물면서 학원을 창설하여 6부의 학도들을 가르치게 하였고, 면백(綿帛)을 하사하고 권장해 의(醫)·복(卜)도 같이 가르치게 하여 곡식 백석(百石)을 내려 학보(學寶)를 만들고 학업에 힘쓰게 하였다.

또한 태조는 경주에도 신라 신문왕 2년(682년)에 설치되었던 국학을 그대로 존치시켜 지방자제를 교육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건국 초기부터 교육기구를 두고 문교정책에 힘써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교육기구를 널리 설치하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교육을 장려하였다는 것은 광종(光宗) 9년(958년)의 과거제도에서 볼 수 있다. 광종 때는 이미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유학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시킬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었다.

태조가 교육정책에 힘을 기울인 요인은 당시 지방 호족들을 포섭, 유교주의 이념인 충효사상을 주입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관리 양성기관으로서의 학교 창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종은 958년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가 고려에 채택됨으로써 학교 교육이 진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과거의 시험 과목이 곧 유교 교과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 내용면에서 볼 때 과거제도가 본래의 인격 완성이란 교육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학교 교육은 과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성종(成宗:982~997년) 때는 지방 학생들을 위하여 유경학습(留京學習) 및 십이목(十二牧)에 박사를 파견, 훈회(訓誨)함으로써 지방교육에 힘쓰고, 개성에는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또한 성종은 수서원(修書院)을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는 등 문교 정책에 힘썼다.

문종(文宗)시대에는 해동공자(海東孔子)라는 칭호를 받은 최충(崔沖)이 교육을 위하여 힘쓴 결과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문종부터 예종(睿宗: 1105~1122년)대까지 70여 년은 외적의 침입이 없었고, 국내에는 평화로운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문물이 크게 발달했던 시대였다.

최충의 학제는 구재(九齋)로 나누어 구재학당(九齋學堂)을 두었으며, 교육방법으로서 교관은 자신이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문도(文徒)중에서 급제하여 아직 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로 우수한 선비로 뽑아 특별 강사로 삼아 가르치게 하고 있다.

인종(仁宗: 1123~1146년)에 와서는 국학을 국자감으로 환원시키는 학교의 학식(學式)을 완비하였는데 삼학(三學)으로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文學)을 두었고, 잡학(雜學)으로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을 두어 신분에 따라 입학이 달랐다. 또한 고려의 교육부흥이라 할 수 있는 충렬왕 33년(1308년)에는 안향(安珦)의 건의로 국자감을 성균관(成均館)으로 개칭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담학전(季學錢)을 두었다.

3) 교육제도

가) 관학(官學)

관공학(官公學)의 준말로서, 사학(私學)과 대립되는 명칭이다. 고구려의 태학(太學), 신라의 국학(國學), 고려의 국자감(國子監), 조선의 성균관(成均館)과 그 외 향교(鄕校)나 동서학당(東西學堂)·오부학당(五部學堂) 등도 여기에 속한다.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으로 개경(開京)에는 국립인 국자감, 동서학당, 그 뒤에 오부학당 및 사립인 십이공도(十二公徒)가 있었고, 지방교육 기관으로는 각 군에 향교 및 서당이 있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국학이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모방에 그치지 않고 관제나 내용이 신라의 특징을 살리고 있음에 비추어 고려의 국자감은 그 명칭이나 편제가 당나라 제도를 그대로 본떴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관학(官學)은 국가에서 세운 관학(官學)이나 공학(公學)을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별도 기술한다.

(1) 국자감

국자감(國子監)은 607년 중국 수(隋)나라에서 창시되어 고려에서는 992년(성종 11년) 태조 이후의 교육기관이던 경학(京學)을 국자감으로 개칭하여 설치하였다. 1275년(충렬왕 1년)에는 국학(國學), 1298년에는 성균감(成均監), 1308년(충선왕 즉위)에는 성균관(成均館), 1356년(공민왕 5년)에는 다시 국자감, 1362년에는 또다시 성균관으로 고쳐 조선으로 계승된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국자감은 성종이 중앙과 지방관제를 정비하여 관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양성기관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門學) 등 유학(儒學)전공의 3학과,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등 실무적 기술을 습득하는 3학을 두어 이들을 경사육학(京師六學)이라 하였다.

이중 앞의 3학은 모두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전공하는 기관으로, 학과와 구별없이 학생의 신분에 따른 구별이었으며, 지배계급의 자제로서 장래 고급관원으로 출세하려는 자들이 입학하였다. 한편 율학 등 3학은 일종의 직업학으로 전문직으로 나갈 계급이 낮은 신분의 자제들이 들어갔다. 국자감의 정원은 국자학·태학·사문학이 각각 300명으로 모두 900명이었고, 율학 등 3학은 미상(未詳)이며, 각 학과마다 박사·조교가 교수하였다.

공부한 내용은 국자학·태학·사문학이 모두 같으며 효경·논어를 공통 필수과목으로 하고, 주역·상서(尙書)·주례(周禮)·예기(禮記)·모시(毛詩)·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 등은 전공교과로 하였다. 공부하는 연한은 국자감 시험에 응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시하는데 필요한 6년과 국자감 시험에 합격한 후 3년이 지나야 최종 시험인 예부시(禮部試)에 응시할 수 있어 9년이 소요되었으며, 율학·서학·산학은 6년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국자감 수학 내용 및 인사자격>

학 명	입학자격	정원	교 수	학 과	비고
국자학	문무관 3품 이상 자손	300	박사.조교	역.시.서.3예 3전 춘추.효경 논어 등	
태 학	문무관 5품 이상 자손	300	"	"	
사문학	문무관 7품 이상 자손	300	"	"	
율 학	문무관 8품 이상의 자손 및 서인		박 사	법률	
서 학	"		"	8서	
산 학	"		"	산수	

성종 11년(992년)에 개경(開京)에 설립된 국자감은 이후 예종 4년(1109년)에는 그 안에 문무 7재(文武七齋)를 두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왕이 손수 참석하여 선성(先聖)·선사(先師)·공자상(孔子像)에 헌작(獻酌)의 예를 올렸다. 이 국자감이 일종의 국립종합 대학교로서의 명목을 갖추게 된 것은 17대 인종 때였다.

그는 동방(東方) 학자들이 한사(漢史)의 역사는 잘 알면서도 제 나라의 역사에는 어두움을 개탄하고 김부식(金富式)에게 정사(正史)를 찬(撰)하게 하였고, 식목도감(式目都監 : 지금의 법제처)으로 하여금 학제를 상정(詳定)하는데 힘쓰게 하였는데 그 학제와 입학자격은 앞에서 보았다.

문종은 1063년(문종 17년)에 사학(私學)이 융성하고 관학(官學 : 국자감)이 부진하자 교관의 책임이라 책망하고 국자감의 질적 향상을 피하여 직제를 제정하였다. 즉 제거(提學 : 종 2품)·동제거(同提學 : 종 2품)·관구(管句 : 정 3품)·판사(判事 : 정 3품) 각 2명, 제주(祭酒 : 종 3품)·사업(司業 : 종 4품)·승(丞 : 종 6품) 각 1명, 국자박사(정 7품) 각 2명, 학유(學諭 : 종 9품) 4명, 직학(直學 : 종 9품)·서학박사(종 9품)·산학박사(종 9품) 각 2명과 이속(吏屬)으로 서사(書史)·기관(記官) 각 2명을 두었고, 그 후에도 대사성(大司成 : 정 3품)·명경박사(明經博士 : 정 8품)·율학박사(종 8품)·명경학유(明經學諭 : 종 9품)·율학조교 등을 두었다.

예종 4년(1109년)에는 과거 합격자를 십이도(十二徒)에 많이 빼앗기자 과거 응시자를 위하여 국자감에 여택재(麗澤齋 : 주역)·대빙재(待聘齋 : 尙書)·경덕재(經德齋 : 毛詩)·구인재(求仁齋 : 周禮)·복응재(服膺齋 : 載禮)·양정재(養正齋 : 春秋)·강예재(講藝齋 : 武學)의 7재를 두고 전공별 강의를 하였다. 숙종 6년(1101년) 국자감에 서적포(書籍滯)라는 국립도서관을 설치하고, 1562년 성균관으로 개칭된 뒤에는 강예재가 없는 6재를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9재로 바꾸어 성리학 중심의 교

육으로 전환하였다.

(2) 동서학당

동서학당(東西學堂)은 원종(元宗) 2년(1261년)에 수도인 개경(開京)의 동서 양쪽에 두 학교를 둔 것을 말하는데 별감(別監)을 보내어 학문을 가르쳐 교도(敎導)하였다는 조서(詔書)를 내린바 있다고 한다. 원종은 태자 때에 원나라에서 지냈으며, 그곳에서 성리학의 융성을 직접 보고 와서는 학당을 세우고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김궤(金軌), 상서좌승 선문렬(宣文烈)을 별감으로 삼아 유학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지방에는 향교가 있는데 반하여 중앙의 귀족 자제는 국가감에 입학할 수 있게 하였고, 수도에 사는 서민 자제의 교육기관으로 동서학당을 세웠다. 이 동서학당은 후에 오부학당(五部學堂)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공양왕 때에 와서는 성리학자 정몽주(鄭夢周)가 성균관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유학이 발전되었고 중앙의 동서에 두었던 학당이 뒤에 5개 학교로 되었다.

(3) 향교

향교(鄕校)는 지방의 교육기관으로서 고려시대의 향교에 대한 기록은 흔하지 않으나 성종(成宗) 5년(986년)에 여러 지방의 학생들이 경사(京師)에 머물러 공부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학생들을 고향에 돌아가게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성종 6년에 지방행정구획인 12목(牧)에 경학(經學)·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명씩을 파견하여 지방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교의 시초라고 전해진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향교제도를 창시한 성종은 고려조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유교를 숭상하고 교육 정책에 역점을 둔 임금으로 국가감을 위시한 동서학당·향교를 확장 내지는 신설하였고, 교육제도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닦았으며, 그는 국민개학(國民皆學)을 교육방침으로 삼아 어질고 착하며 면학에 열의 있는 자는 성적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여 관리로 등용하였으며 모든 주(州)·군(郡)·현(縣)의 장리(長吏)나 백성들 중에서 가르칠만한 자가 있으면 골라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를 위하여 향교의 설립이 불가피하였다고 한다.

서울의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향교도 성균관의 하급 관학으로서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및 중국·조선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서무(西廡)와 동재(東齋)·서재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類)를 두었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에 두어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 6품의 교수와 정 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일이다.

나) 사학

사학(私學)은 국가에서 설립한 관학에 대응하는 말로 관공학의 보충적 기능을 가진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고, 관공학의 독자적인 의의와 기능을 가진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자주성을 보다 중시하고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고려시대 사학의 교육사적으로 특기할 사실은 관학이 그 제도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하였던데 대하여 사학의 대두와 그 진작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고려 이전에도 사학은 있었지만 학교라고 불릴만한 것은 없었고, 문종(文宗)때 와서 해동공자로 일컫는 최충(崔沖)으로 하여금 사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본다.

(1) 구재학당

구재학당(九齋學堂)은 문종 9년(1055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최충(崔沖)은 군국대사(軍國大事)에 관한 왕으로부터의 자문을 받았으며 문종 22년(1066년) 8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진교육에 힘썼다. 그 당시 국학은 시설면이나 교육면에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향학열에 불타는 청년들, 특히 과거를 보려는 응시자들은 최충이 개설한 사숙(私塾) 학교에 모여 들었고, 이 때문에 학반을 구재로 나누어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를 구재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이 학당을 시인들은 시중(侍中) 최공도(崔公徒)라 불렀다.

고려시대 사학은 태조 때 정악(廷帽)이 서경에 세운 숙(塾)이 시초이나 최충이 세운 구재는 시설이나 교육면에서 국가감을 훨씬 능가하여 과거응시자가 몰리자 학반을 구재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구재로는 악성(樂聖)·대중(大中)·성명(誠明)·경업(敬業)·조도(造道)·솔성(率性)·진덕(進德)·대화(大和)·대빙(待聘)으로 나누었으며, 학과는 5경(五經 : 역·시·서·예·춘추)과 3사(三史 : 사기·한서·후한서)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시부사장(詩賦詞章)의 학에 기운 것이었으나, 그것은 시문(詩文)을 위주로 하던 당대의 풍조와 과거 준비하는 목적을 놓고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런데 구재의 명칭들이 암시하듯 이는 유교의 공부하는 단계를 표시한 것으로 그 중 성명(誠明)과 솔성(率性)은 중용에서 딴 것이었다. 중용은 도학(道學)의 중추가 되는 책으로서 대학과 함께 예기에 포함되어 왔던 것을 정자(程子)가 한 책으로 따로 따내어 사서(四書)의 하나로 한 것인데 최충은 그보다 45년이나 앞서 중요에 주목, 그 책안의 어구를 따서 재명(齋名)을 삼았으니 그 교육방침의 탁월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구재의 운영은 매년 여름철이면 하기 강습회의 하나로 하과(夏課)를 개설하였는데, 특히 귀법사(歸法寺)의 승방(僧房)을 빌려 문도(門徒) 중의 과거 급제자로서 임관(任官)하지 않은 실력자를 강사로 삼아 교수하게 하였다. 또 선진들 중에서 구재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축부시(刻燭賦詩)하는 즉흥시회(卽興詩會)를 열어서 그 작품의 우열에 따라 석차를 정하고, 간단한 연회를 베풀어 종일토록 흥을 즐기게 하였다. 그런데 이 연회석에서도 각 문도들의 예의동작 등이 나가고 들 때 예를 지키고, 나이에 따라 질서를 차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더니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유정(有情)·사제(師弟)·도의(道議) 등에 관한 실천윤리 곧, 학행일치(學行

一致)의 기풍진작을 앞세웠던 교육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학풍은 각 지방 향교는 물론 고을의 서사(書社 : 글방)에까지 크게 영향을 끼쳤다.

구재는 최충의 사후에도 문헌공도(文憲公徒)라 하여 오랫동안 과거응시자의 준비기관으로 존속되었다. 구재가 번성하자 11명의 학자들이 그 학풍을 모방하여 사립학교를 열었는데, 구재를 포함하여 이를 12도(十二徒)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관학은 더욱 위축되고 사학만이 발달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12도

십이도(十二徒)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학기관으로서 가장 알려진 것은 12개 학교인 12도이다. 이 12도는 해동공자의 칭호를 받던 최충(崔沖)이 창시하였다. 최충은 해주 출생으로 문무를 겸비한 당시의 학자로서 72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여생을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인 학자이다.

문종은 교육발전을 위해 힘을 썼으나 관학인 국학을 지도하는 교수의 무책임한 지도로 약화되던 때에 유학의 태두(泰斗)이며, 정계의 원로인 최충이 직접 나서서 청년 교육을 담당하자 전국에서 청년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 와 그의 사숙(私塾)을 찾는 학생들로 꽉 메웠다고 한다.

최충은 이들에게 학반을 나누어 구재로 정하고 교육에 힘썼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보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학행(學行)이 예절 바르고, 덕을 쌓는 이들이어서 그 칭찬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이같이 최공도의 교육성과가 알려지자 명성 높은 유신(儒臣)을 모으니 이것이 12도였는데 12도는 설립자의 시호나 호, 벼슬 이름을 딴 것인데 다음과 같다.

<사학 12도>

설립자 이름	관직이름	12도 이름	연대	비고
최충(崔沖)	문하시중(門下侍中)	문헌공도(文憲公徒)	문종	
정배걸(鄭倍傑)	문하시중(門下侍中)	홍문공도(弘文公徒)	"	웅천도(熊川徒)
노단(盧旦)	참지정사(參知政事)	광헌공도(匡憲公徒)	"	
김상빈(金尙賓)	국자제주(國子祭酒)	남산도(南山徒)	"	
김무체(金無滯)	복사(僕射)	서원도(西園徒)	"	
은정(殷鼎)	문하시중(門下侍中)	문충공도(文忠公徒)	"	
김의진(金義珍)	평장사(平章士)	양신공도(良愼公徒)	"	
황영(黃榮)	"	정경공도(貞敬公徒)	숙종	
유감(柳監)	"	충평공도(忠平公徒)	"	
문정(文正)	문하시중(門下侍中)	정헌공도(貞憲公徒)	문종	
서석(徐碩)	시랑(侍郎)	서시랑도(徐侍郎徒)	"	
설립자미상		귀산도(龜山徒)	"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최종이 설립한 문헌공도가 문종17년(1068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공도도 거의 문종 때를 전후해서 세워졌다 한다. 인종 때 과거 합격자는 거의 12도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같이 합격자가 많아지자 이들 간에 여러 가지 알력이 일어났는데, 인종 11년(1133년)에는 소속도를 옮긴 자는 과거의 예비고사 격인 동당(東堂) 감시(監試)에 응시할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고려 중기에 국가감의 운영이 부실하고 향교내 학당이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시기에 유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는 지대하였다. 그 이후 무신의 난, 외적의 침입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가 공민왕 때는 그 부흥에 힘쓰기도 했으나 공양왕 3년(1391년)에 고려의 멸망과 함께 폐지당했다

(3) 서당

고려의 서당(書堂)에 관한 기록은 송(宋)나라 사람 서공(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나와 있다.

“여염의 거리에는 경관(經官)과 서사(書司)가 두셋씩 서로 바라보이며 서민 자제의 미혼자가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경(經)을 배우며 조금 장성하고 나서는 저희끼리 벗을 택하여 사원(寺院)으로 가서 강습하고 그 아래 어린 무리들도 역시 향(鄉)선생을 찾아 배운다.”

여기에서 미루어 보면 서당의 수가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는 이처럼 사학으로서의 서당도 꽤나 융성하였던 것 같고 사원에서 강습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4) 과거제도

고려의 과거제도는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로 광종 9년(958년)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하였고, 이것은 신라 국학이래로 인재등용에 있어서는 국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당나라 유학생 가운데서 뽑았던 일에 비하여 진일보한 제도였다. 그러나 그 역시 당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응시과목이 국가감의 교육내용에 상응하였다.

매년 과거행사는 각 지방의 장은 과거응시 지망자를 지방향교에 모아 고시(考試)한 것으로부터 개시되었다. 각 지방관은 응시자 중에서 1~3명을 뽑아 중앙으로 보냈는데 이때 선발된 사람을 진사(進士)라 하였다. 이 진사의 시험은 제술(製述)인 시와 논문, 명경(明經)인 유교의 경전해설의 두 과목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 밖에 제업(諸業)이라 하여 의(乘)·복(卜)·지리·율(법률)·서(書)·산(算) 등의 시험도 행하였는데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사의 수는 매년 4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 400여명의 진사들은 중앙에 모여 국가감에서 행하는 시험을 치렀고, 감시(監試)라 불리는 시험이 곧 등용의 여부가 결정되는 최종 시험이었다.

이 감시에 급제하는 합격자의 수는 정원이 없었고, 급제자는 3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13대 선종(宣宗)대에 들어서서는 진사와 제업의 시험을 3년에 1회씩 실시하였으며, 14대 헌종(憲宗) 때부터는 2년에 1회씩 실시하기로 하고 다시 방침을 바꾸었다.

의종(毅宗) 때는 무단(武斷)정치로 인하여 과거의 범이 크게 문란하였던 것이 흠이었는데, 고려의 과거제도는 무과(武科)가 없었던 것이 또 하나의 결점이었다. 그 후 공민왕 때에는 이목은(李牧隱)이 무과설치를 요구하여 상서(上書)까지 올렸으나 시행을 보지 못했다.

이 밖에 과거에는 승과(僧科 : 敎宗試와 禪宗試)가 있었으며, 무신(武臣)의 등용을 위한 과거는 공양왕 2년(1390년)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여 거의 없었다. 과거의 응시 자격은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양인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은 사실상 응시하지 못하였다.

응시의 절차는 3차에 걸쳐 시험을 보게 하였다. 처음에는 매년 과거를 실시했으나 성종 때에는 3년(式年試)에 한번씩 실시하였고, 헌종 때에는 격년으로, 그 후에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하였다. 1차 시험에서는 중앙(개경)에서 선발한 자를 상공(上貢), 지방에서 선발한 자를 향공(鄉貢), 외국인 중에서 선발한 자를 빈공(賓貢)이라고 하였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삼공(三貢 : 상공·향공·빈공)들을 국자감에서 다시 선발(국자감시 : 재시), 이에 합격한 자(貢士)와 국자감에서 3년이상 수학한 학생, 벼슬에 올라 300일 이상 경과한 자들이 최종시험인 3차시험(동당감시 : 東堂監試)을 보게 하였다.

합격자는 제술과는 갑·을의 2과로, 명경과는 갑·을·병·정의 4과로 나누었다. 합격자의 정원은 없었으나 중기 이후 대체로 33명이었다. 이와같은 과거는 예부에서 관장하였고, 시험관을 지공거(知貢擧)라 하였다. 그리고 최종 시험에서 1등을 장원(壯元), 2등을 아원(亞元 : 榜眼), 3등을 탐화(探花)라고 하였고, 빈공에서 합격한 자를 별두(別頭)라고 하였다. 때로는 동당감시에 합격한 사람도 임금이 다시 시(詩)· 부(賦)· 논(論)으로 친히 시험을 보게 하여 등급을 정하는 복시<覆試 : 屛前重試> 중시(重試)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복시는 성종 때 처음 시작하였으나 상례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홍패(紅牌)를 주었는데 이것이 곧 합격증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는 지공거와 합격자가 좌주(座主)와 문생(門生)의 관계를 맺어 일생을 통하여 그 예를 부자지간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학벌이 형성되어 출세의 배경이 되었다.

의종 이후 이 과거제도는 문란하여져 공민왕 때 이색(李穡)은 지공거 이인복(李仁

復)과 논의하여 원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향시(鄉試)·감시(監試 : 會試)·전시(殿試)의 3단계의 제도를 확정하고, 시험관인 지공거도 시험 1일 전에 임명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과거 이외에 5품 이상인 관리의 자제에게는 1명에 한하여 정치적 특혜를 인정하여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리에 채용한 음서제도(蔭敍制度)가 있었다.

초기의 과거시험은 제술과(製述科 : 진사과)·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 : 의·복과)를 두었으며, 1136년(인종 14년)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관 등용시험이었으나,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고려시대를 통하여 제술과의 합격자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 명경과 합격자는 450명 정도인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들이 경학보다 문학을 숭상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잡과는 위의 양보다 그 격이 낮았다.

마. 조선시대의 교육

1) 개관

조선시대의 교육은 고려말에 극심했던 불교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배불숭유(排佛崇儒)를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초기에 민심을 통일하는 수단으로 공(孔)·맹(孟)의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사상을 적극 장려한 결과 유학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유교를 국교로 정하였기 때문에 성균관(成均館)과 성리학(性理學)은 조선시대 교육의 근간(根幹)이 되었던 것이다. 태조 6년(1397년)에는 고려말의 국자감을 모방하여 성균관을 짓고 이듬해에는 성균관 문묘(文廟)와 명륜당(明倫堂)을 지어서 중앙의 교육기관을 정비하였다. 지방에는 관학인 향교를 두어서 교육제도를 확립한 조선은 교육정책에 힘을 쏟았다.

유교의 교육목표는 한마디로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 하겠다. 성리학에서는 성현을 본받고 배우며 도달하는 범성현을 강조하게 되고 군자(君子)로서 노력하고 배워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학문의 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에 있어서 교육사상은 성리학이 골고루 정착화 되거나, 생활화 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선발전 특수계층에만 강조된 나머지 사장(詞章) 중심의 교육과 관념 논쟁으로 치달아 실생활이나 사실(事實), 사물의 학문을 경시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18세기 실학(實學)사상의 대두였다.

실학과의 교육론은 청(淸)나라의 고증학과 서학(西學)의 영향에서 역사의 변천과 사회적 실정을 바로 파악해서 민족의 각성과 자아의 올바른 향방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다. 즉 실생활에 적응되는 실천적 교육관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실로 실학의 신흥 학풍은 당시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과거를 통한 입신영달(立身榮達)에의 집념에서 유래되었다고 지적하는 교육풍토 쇄신, 사회적 통속이었던 노동을 천시하는 관념을 타파하고자 노력했다.

이 학풍은 유향원(柳響遠)을 비롯해서 홍대용(洪大容)·정약용(丁若鏞) 등으로 이어져 후일 개화사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유교와 더불어 고려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켰다. 갑오경장까지 조선왕조의 교육제도는 최고 학부로서 성균관을 비롯해서 사학(四學), 지방의 향교, 서원, 서당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유교주의 국가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기관을 증설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인문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국립대학인 성균관을, 중등교육을 위하여는 서울에 4부 학당을,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였다.

향교에는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학생들은 군역(軍役)이 면제되었는데, 농번기에는 방학을 맞아 농사일을 돕고 농한기에는 기숙사인 재(齋)에 거처하면서 공부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이 있어, 훈장·접장(接長)의 교수 아래 한자(漢字)의 초보와 습자(習字)공부가 이루어졌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書院)이 각지에 설립되면서 선현을 제사하기도 하고 지방의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여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한편, 기술교육은 의학·역학(譯學)·산학(算學)·율학(律學)·천문학·지리학 등으로 나누어 각각 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호조·형조·관상감(觀象監) 등 해당관청에서 가르쳤다. 이들 기술학은 당시 잡학이라 하여 천시되었으며, 중인(中人) 계층의 자제가 이를 세습적으로 배워 기술관이 되었다.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하여야 한다. 교육의 기회가 거의 양반에게 독점되었으며 과거 역시 양반들이 독차지하였다. 과거에는 문과와 무과가 있다. 양반사회에서는 가장 중요시된 문관 채용시험은 생진과(生進科: 소과)와 문과(대과)의 두 단계로 나뉘었다. 생진과에는 4서 5경으로서 시험 보는 생원과(生員科)와 시(詩)·부(賦)·표(表)·책(策) 등 문장으로 시험하는 진사과(進士科)가 있었는데, 양반자제들은 초시(初試)·복시(覆試)에 모두 합격하면 과에 따라서 생원 또는 진사라고 불렀다.

생원·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대과에서는 초시·복시를 통해 합격하면 전시(殿試)에서 그 등급이 결정되었다. 생진과에서는 200

명, 대과에서는 33명이 선발되었다. 무관시험도 역시 초시·복시·전시를 거치는데, 초시에서는 서울과 각 도의 병영에서 200명을, 복시에서는 서울의 병조에서 행하되 28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들을 선달(先達)이라 하였다.

기술관 채용을 위한 잡과에는 역과·의과·음양과·율과의 4과가 있는데, 양반의 서자나, 중인계급에서 응시하였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음서(蔭敍)나 취재(取才)를 거쳐서 관료가 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이와같은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크게 바뀌었다.

조정에서는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1886년 최초의 근대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여 신식교육을 실시하고, 1895년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調書)’를 발표하여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외국어학교·의학교 등을 세워 관립학교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폐단이 많았던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임용법을 채용하여 종래의 양반·상인이나 문반·무반의 구별을 없앴다.

가) 성균관(成均館 : 국립대학)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성균관 조선왕조에 와서는 성균관의 명칭을 계승하여 태조 6년(1397년)에 현재의 자리인 숭교방(崇教坊)에 건물을 짓고 이듬해 문을 열었다. 강의하는 명륜당과 유교선현을 모신 문묘,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齋)를 두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지사(知事 : 정2품) 1명, 학론(學論 : 종9품)까지 37명의 교직원이 배정되었다. 유학생의 정원 및 취학자격은 정원 200명으로서 생원(生員)·진사(進士), 즉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鄉試)에 합격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미달될 때에는 사학(四學)의 생도나 국가유공자의 직계자손으로 능력을 보아 보충하고 관리로서 취학을 희망하는 자는 허락했다.

성균관은 양현고(養賢庫)라는 부설기관을 두고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유생들의 일용 물품의 공급과 숙식의 뒷바라지를 책임졌다. 따라서 성균관에서는 국가가 정식으로 지급한 토지 외에도 많은 보조를 받음으로써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왕이 친히 문묘에 제사지내며, 거동도 찾아서 유교이념에 입각한 학술의 연마와 지도적 인재를 배출하는 총 본산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성종 때에는 형관청(亨官廳) 도서관인 존경각(尊經閣 : 서고)도 완성되었으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몇 차례 기복은 있었지만 최고 학부로서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었다. 성균관에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은

첫째, 강독(講讀)으로 사서(四書 : 논어·맹자·중용·대학), 오경(五經 : 시전·서전·주역·예기·춘추)과 여러 가지 역사서적 등을 강독하고,

둘째, 제술(製述)로 의(疑)·논(論)·부(賦)·표(表)·송(頌)·명(銘)·잠(箴)·기(記)이고

셋째, 서법(書法)으로 해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 등이 있었다.

강독에 있어서 대학 1개월, 논어·맹자 각 4개월, 시전·서전·춘추 각 6개월, 주역·예기가 각 7개월로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강독 분수(分數 : 성적)는 5단계로 나누어져 대통(大通)·통(通)·약통(略通)·조통(祖通)·조통 이하의 5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성균관의 학칙(學則)은 학령(學令)을 비롯해서 권학사목(勸學事目)·구재학규(九齋學規)·원점절목(圓點節目)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학령에는 성균관에서 행하여진 아침 행사, 매월 행사를 비롯해서 독서·제술·강독성적·벌칙·자치제 등에 관해서 신고 있다.

성균관 유생들은 그들대로의 자치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서 이를테면 국가 정책에 실정(失政)이 있거나 명군의 풍습이나 가르침에 해가 될만한 일이 있다고 보았을 때는 유생들이 소(疏)를 올려 탄핵도 하였으며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식인 권당(捲堂), 수업거부인 공재(空齋), 등교거부인 공관(空館) 등의 집단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1894년의 갑오개혁은 성균관의 역사에서 중요한 굴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근대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때 성균관은 개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유학과 도덕을 지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1946년 성균관대학의 설립으로 그 전통은 계승되었다. 1785년(정조 9년)에 편찬된 태학지(太學志)에는 성균관 건물 배치도 및 성균관 제도의 변천과정, 유생의 활동내용 등의 자세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성균관의 역사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에 여기 덧붙인다.

나) 사학(四學 : 국립대학 부속학교)

사학(四學)은 조선시대 관립 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四部學堂)이라고도 한다. 고려 시대에는 개경(開京)과 조선 시대에는 한성(漢城)의 각 부(部)에 두었는데, 당시 모든 제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었으나, 이 제도는 중국에도 없던 것을 고려 말 유학 진흥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설치하여 조선에 내려와 발전을 본 관학(官學)으로, 지방의 향교와 달리 문선왕묘(文宣王廟)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1261년(원종 2년)에 동·서부에 학당을 설치하여 별감을 두고 가르치다

가, 뒤에 유교가 불교보다 승하여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자 개경의 각 부에 학당을 설치하여 5부학당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두어 서울을 동·서·남·북의 5부로 나누어 여기에 학교를 하나씩 설치하기로 하여 5부학당(五學)이라 하였으나, 북부학당은 끝내 설치하지 못하고 1445년(세종27년)에 폐지되어, 동학(東學)·서학(西學)·중학(中學)·남학(南學)등 4부 학당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사(學舍)가 없어서 대부분은 사원(寺院)을 이용하였으나 1410년(태종 10년) 성명방(誠明坊)에 남부학당이 설치됨을 계기로 이후 나머지 학당도 모두 건물을 갖게 되었다. 학당은 재사(齋舍 : 기숙사) 제도를 마련, 그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국가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학전(學田)·노비(奴婢)·잡물(雜物)등을 사급(賜給)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북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의 어장(漁場)을 주어 그 세(稅)로서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교수·훈도 각 2명을 두고 성균관 관원으로 겸직하게 하였으나, 뒤에는 각 1명씩을 감하는 대신 겸직을 없앴다. 그리고 예조(禮曹)와 사헌부(司憲府)에서 학당의 수업상태를 항상 감독하였다. 이곳에 입학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세가(勢家) 양반 자체로서, 8세가 되면 입학자격을 주어 소학(小學)·사서오경(四書五經)을 배우고, 15세가 되어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하면 성균관기재(成均館寄齋)에 입학하게 된다.

이것은 커다란 특전으로 기재생은 성균관 상재생(上齋生)과 똑 같은 대우를 받았다. 학당에서는 5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예조에서는 달마다 시험을 쳐서 1년의 성적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사학의 유생은 15일은 제술(製述), 15일은 경사(經史)를 강독하여 우수한 사람 5명을 뽑아 생원·진사시험에 직접 응시하게 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유월도회(六月都會)의 우등자도 1, 2명은 생원·진사의 회시(會試 : 覆試)에 직접 응시(直赴)하게 하였고, 또한 사학 유생에게는 원점(圓點)에 따라 알성시(謁聖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 유생과 함께 유교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소행(疎行)·권당(捲堂)등의 학생운동을 하는 수도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새로 진출한 사림(士林)을 도와 훈구(勳舊) 관료들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불승(佛僧)과 산사(山寺)에서 격투를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때마다 이들에 대한 처벌 논의가 있었지만 그 벌은 가벼웠고, 도리어 이를 가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임진왜란 때 학당이 불타서 다시 건물을 지은 뒤에는 학생수가 격감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고, 한말에는 이들 관학이 부진하여 외국인에 의해 사학(私學)이 세워졌을 때 학교 이름에 학당을 붙여 배재학당 등으로 불렸다.

다) 종학(宗學 : 왕실학교)

종학(宗學)은 왕족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왕족 위주의 교육기관이다. 다른 학교와는 달리 예조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부사(宗簿寺)의 감독을 받았다. 국조보감(國朝寶監)에 의하면 종학은 세종 11년(1429년)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왕 10년(1428년)에 설치되었다 한다.

이렇게 설치된 종학은 연산군 때에 폐지되었다가 중종(中宗) 때 다시 재건되었으나 중종 이후에 와서는 폐지되었다. 이 종학의 교육과목은 경술과 문예(文藝)를 주로 하였으며, 입학 자격은 종친자제(宗親子弟)로 15세 이상이고, 정원은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기도 했다.

라) 향교(鄕校 : 중등학교)

고려시대에 설치된 향교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립중등교육기관으로 지방재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다. 태조 원년(1392년)에 각 도의 안찰사(按察使)에 명하여 그 지방 향교의 발전 여부에 따라 지방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크게 교육의 쇄신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지방행정 단위였던 부(府)·목(牧)·군(郡)·현(縣)에 향교 1개씩을 두고 운영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학생 정원과 교수·훈도직을 정규 관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원과 자격 기준을 부와 대도호부·목 단위에서는 90명을 정원으로 간주하고, 16세 이하인 자는 정원 외로 보았다. 이하 도호부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규정하였다. 후일에 가서는 거의 폐지되었으나 초기 향교에는 종3품의 교수, 종9품의 훈도가 배정되었는데 경상도에는 교수 12명·훈도 55명이었고, 사천의 곤양향교와 사천향교에는 각각 훈도 1명이었다.

향교 설립의 목적은 성현에 대한 향사(享祀)와 유생에게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교육기능과 함께 지방의 문화 향상과 풍토진작 등 재원을 삼게 했으며, 후일에는 상당 수준의 자체 재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관학인 향교는 교생들에게 향사 시험 성적의 우수자에게 소과복시(小科覆試)에 응시케 하고 균역·과세의 면제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방 향교 교육에 기여한바 컸다. 그러나 중종 때부터 관학 정책의 모순 등으로 퇴폐상을 드러냈으니 양반이나 사대부 자제들이 향교를 꺼리게 되었고, 이에 편승한 족계 외의 중서민층 자제가 입학하여 균역을 면하는 기피장소로 변하였다.

향교 퇴폐의 이유로는 물론 중종조 이후 관학과 함께 사학인 서원의 증가도 있겠으

나 자체적인 모순으로는 유능한 교수와 훈도가 지방 수령의 감독하에 있기를 싫어하게 되어 정계 투신이나 사학 등으로 빠져 나간데서 큰 원인이 있다 하겠다. 유생들도 학문하는 목적이 과거를 보아 출세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학의 유능한 학자를 따랐으니, 지방 향교는 쇠퇴 일로에 빠져서 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향교의 쇠퇴를 방지하지는 않아 실록(實錄) 중종조의 기록에서 교수의 오랜 근무를 강조하고 있고, 학전(學田)의 지급, 재상 자제들의 관학 취학과, 선조조의 제독관(提督官)의 파견 등은 그 일례라 하겠다.

임진왜란 이후 향교 부흥책도 변함이 없는데 인조(仁祖) 때의 향교 권학수목(勸學修目), 효종(孝宗) 10년(1659년) 송준길(宋浚吉)의 향학지규(鄉學之規), 현종(顯宗) 5년(1664년)에는 평안도 방면에 교양관(教養官)을 두어 유생을 교육하였다는 기록과 숙종(肅宗) 5년(1679년)에는 유학진흥을 위하여 경상·전라도에 제독관을 다시 복직시켰다는 기록 등은 중향교(重鄉校) 부흥정책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어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정비로 향교는 이름만 남아 문묘석존(文廟釋尊)만을 제사지낼 따름이었다. 한일합방(韓日合邦 : 1911년) 이후 발효된 조선총독부령으로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개칭하고 문묘만을 봉안하였으며, 지방에는 문묘직원을 명예직으로 두고 부윤(府尹)·군수(郡守)의 감독하에 문묘를 지키고 서무에 종사케 했다.

학전(學田)의 소관으로 융희(隆熙) 4년(1910년)에 향교재단 관리규정을 정하고 부윤·군수로 하여금 정리케 하고 그 수입은 부근의 공립학교, 또는 지정하는 학교의 경비와 문묘의 행사비로 충당케 하였으며, 그 후 동재산관리규정은 폐기되고, 문묘의 유지와 제향비 및 사회교육사업에 충당케 되었다.

광복후 전국 유림의 총의에 의하여 본 이름으로 환원된 성균관은 옛날 제도를 혁신하여 교육과 문화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성균관 대학을 경영하고 유도회(儒道會)를 조직하여 총 본부를 성균관에 두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유도발전과 윤리 확립 진흥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각 도별로 향교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유림대표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향교 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하고 있으며, 향교에 따라 건물의 유지와 문묘의 제사 지내는 일에 약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향교도 있으나 지금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곳도 있다.

광복 후 전국 유림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오성<五聖 : 공자(孔子)·안자(顔子)·자사(子思)·증자(曾子)·맹자(孟子)>, 이현<二賢 : 정명도(程明道)·주희암(朱晦庵)>외에 중국의 현유(賢儒) 113위(啓聖祀 포함)의 위패를 매안(埋安)하고, 우리나라 18현(賢)을 합하여 총 25위를 종사(從事)하게 확정지었다.

마) 서원(書院)

서원(書院)은 조선(祖先) 또는 선현(先賢)을 봉사(奉祀)하는 사(祀)와 제자를 교육하는 재(齋)가 결합 성립된 것으로서 지방의 유풍(儒風)을 진작시키고 연학(研學) 수양(修養)의 도장으로 종종 36년(1541년) 풍기(豐基) 군수(뒤에 곤양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안향(安慶)의 고향 순흥(順興)에 세운 백운동(白雲洞) 서원이 그 효시라 하겠고, 뒤이어 인종·명종 연간에는 그 수가 증가 일로에 있었다.

사학(私學)은 고려 중기 이후 교육사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왔고 한편으로는 선조 또는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봉안 재향하는 사묘(祠廟)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특히 여말 주자학의 발흥(勃興)과 함께 더욱 각종 사우(祠宇)의 설립이 성행하여 종묘(宗廟)·가묘(家廟) 등 선조를 봉사하는 혈통 중심의 것과 문묘 생사당(生祠堂 : 생존자를 신화한 것) 일반 사우 등 국가 또는 사회에 공로가 있는 이를 사사(祠祀)하는 것이 있어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사묘(祠廟) 건립이 일반화 되어 갔다.

이러한 사학과 사묘가 서원으로 융합된 것이니 백운동서원도 그 곳이 고려의 명유(名儒) 안향의 옛 살던 곳이었던 만큼 현지 군수가 그 사우를 세워 주자의 백록동(白鹿洞) 학규(學規)를 채용하고 안향을 봉사하는 한편 유생의 독서 강론의 편의를 도와 교육의 기능도 병행한 것이다.

그 뒤 후임 군수였던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이 서원의 장래를 위하여 국가의 보조를 청하여 명종 5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칙액(勅額)과 서적·노비·전결(田結) 등의 하사로 국가의 공인을 받으니 이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라 하겠다. 때마침 각지의 향교가 폐(廢弛)하니 서원 중 유서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청에 따라 편액(扁額)을 사급(賜給)하고 재정상의 보조를 주어 이를 장려하니 각 지방에서는 유지의 출자(出資)와 국가의 보조로서 선현의 연고지에 서원을 사설(私設)하는 일이 성행하여 명종 이전에 설립된 것이 29원, 선조(宣祖)대에 12원, 숙종대에는 80에서 90원을 헤아린다고 <문헌비고학교고(文獻備考學校考)>에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서원의 많은 설치는 양적인 증대만이 아니라 또 이 서원은 일종의 특권적인 것이어서 이에 부속된 밭과 토지는 면세되고 양민(良民)이 원노(院奴)가 되어 균역을 피하는 곳이 되었으며, 유생은 향교보다도 서원에 들어가 강습수도 보다는 유식모의(遊食謀議)를 일삼고 중앙 정계의 붕당과 안·밖이 되어 당론에 급급하고 서원을 근거로 천민을 토색(討索)하는 악패를 이루게 되니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서원에 일대 수술정책을 써서 고종 2년(1865년)에는 가장 세력이 있던 청주 화양동(華陽洞)의 만동묘(萬東廟 : 송시열의 남긴 명으로 건립, 명신종(明神宗), 의종봉사(毅宗奉祀)>를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철폐 하고 같은 해 첩설서원(疊設書院)을 철폐(撤罷)하여 전국 679개소의 서원 중 47개소만을 존치하고 사설을 엄금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 외방(外方)의 사원(祠院)을 금지함을 범하고 청설하면 관찰사는 나처(拿處)하고 수령은 3등율로 죄를 다스리고 수창(首倡)한 유생은 멀리 귀양보낸다.
- 각도 사역서원에 조정에서 품하지 않고 자의로 배향한 자는 도신(道臣)은 중추(重推)하고 지방관은 파직하고 수창한 유생은 3년을 한정하여 과거를 정지한다.
- 각 도·각 읍의 영당(影堂)·정사(精舍)도 명목을 달리 세운 자는 사원측에 의하여 감죄(勘罪)하고 생사당(生祠堂)은 엄단한다.
- 서원에서 위전(位田)을 청하여 본도에서 사사로이 여수(與受)한 자는 엄중하게 죄를 다스린다.
- 사원(祠院)을 첩설(疊設) 하거나 사설(私設)을 금하며 위반할 때는 곧 부수어 없애고 무거운 법으로 다스린다.

당시의 폐지되지 않고 남게 된 전국의 서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원명	사주(祠主)	소재지	비고
송양(崧陽) 서원	충 공(忠 公) 우현보 문충공(文忠公) 정몽주	경기도 개성	
용연(龍淵) 서원	문익공(文翼公) 이덕향	경기도 포천	
강한사(江漢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	경기도 여주	
노강(鷺江) 서원	문열공(文烈公) 박태보	경기도 과천	
우저(牛渚) 서원	문열공(文烈公) 조 현	경기도 김포	
파산(坡山) 서원	문간공(文簡公) 성 혼	경기도 파주	
덕봉(德峯) 서원	문정공(文貞公) 오두인	경기도 양성	
현절사(顯節祠)	문정공(文正公) 김상헌	경기도 광주	
심곡(深谷) 서원	문정공(文正公) 조광조	경기도 용인	
사충(四忠) 서원	충헌공(忠獻公) 김창집	경기도 과천	
충렬사(忠烈祠)	문충공(文忠公) 김삼용	경기도 강화	
홍절사(紅切祠)	장렬공(莊烈公) 권 울	경기도 고양	
돈암(遯岩) 서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	충청도 연산	

제1절 우리 교육 역사

서원명	사주(祠主)	소재지	비고
충렬사(忠烈祠)	충민공(忠愍公) 임경업	충청도 충주	
표충사(表忠祠)	충민공(忠愍公) 이봉상	충청도 청주	
창렬사(彰烈祠)	문정공(文貞公) 윤 집	충청도 홍산	
노강(魯江) 서원	문정공(文貞公) 윤 황	충청도 노성	
무성(武城) 서원	문창후(文昌侯) 최치원	전라도 태인	
필암(筆岩) 서원	문정공(文正公) 김인후	전라도 장성	
포충사(褒忠祠)	충렬공(忠烈公) 고경명	전라도 광주	
서악(西嶽) 서원	홍유후(弘儒侯) 설 충	경상도 경주	
소수(紹修) 서원	문성공(文成公) 안 향	경상도 순흥	
금오(金烏) 서원	충절공(忠節公) 길 재	경상도 선산	
도봉(道峯) 서원	문경공(文敬公) 김굉필	경상도 현풍	
남계(藍溪) 서원	문헌공(文獻公) 정여창	경상도 함양	
옥산(玉山) 서원	문원공(文元公) 이언적	경상도 경주	
도산(陶山) 서원	문순공(文純公) 이 황	경상도 예산	
흥안(興岸) 서원	문정공(文正公) 손준길	경상도 상주	
옥동(玉洞) 서원	익성공(翼成公) 황 희	경상도 상주	
충렬사(忠烈祠)	충렬공(忠烈公) 송상현	경상도 동래	
충렬사(忠烈祠)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경상도 고성	
포충사(褒忠祠)	충강공(忠剛公) 이술원	경상도 거창	
창렬사(彰烈祠)	문렬공(文烈公) 김천일	경상도 진주	
창렬(彰烈) 서원	충정공(忠正公) 박팽년	강원도 영월	
충렬(忠烈) 서원	충렬공(忠烈公) 홍명기	강원도 금화	
포충사(褒忠祠)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강원도 철원	
청성묘(淸聖廟)	청혜후(淸惠侯) 백 이	황해도 해주	
태사사(太師祠)	장절공(壯節公) 신승겸	황해도 평산	
문회(文會) 서원	문성공(文成公) 이 이	황해도 백천	
봉양(鳳陽) 서원	문순공(文純公) 박세채	황해도 장연	
노덕(老德) 서원	문충공(文忠公) 이항복	함경도 북청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서원명	사주(祠主)	소재지	비고
삼충사(三忠祠)	제갈량(諸葛亮) 악 비 문천상(文天祥)	평안도 영유	
표절사(表節祠)	충렬공(忠烈公) 정 기	평안도 정주	
무열사(武烈祠)	석 성(石 星) 이여송	평안도 평양	
수충사(酬忠祠)	정 허(淸 虛) 휴 정 사명당(泗溟堂) 유 정	평안도 영변	
충민공(忠愍公)	충장공(忠莊公) 남이홍	평안도 안주	
병산(屏山) 서원	문충공(文忠公) 유성룡	경상도 안동	

바) 서당(書堂)

서당(書堂) 교육은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민중 자제 교육기관이었던 경당(#蓋堂)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글방으로도 불려진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민중들의 자제들을 위한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한 사설 교육기관이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문치(文治) 주의적 국가 성격과 유교적인 교화에 의한 영향력으로 또한 과거를 지향하는 집념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쳐져서 웬만한 마을이면 서당이 있게 마련이었다. 서당교육의 처음 목적은 사학이나 향교, 혹은 후일에는 서원에서의 입학에 위한 준비 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의 청소년에게 한문의 독해력을 기르고 유교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이해시키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그 설립은 기본 자산이나 인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누구나 뜻 있는 사람이면 훈장 한 사람과 방 한 칸으로써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었다. 그 설립 운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훈장자영서당 : 훈장 스스로가 자신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하여나 혹은 후진을 가르치려는 교육 취향으로 세운 서당
- 유지독영서당(有志獨營書堂) :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의 자제 및 친척의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훈장의 보수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세운 서당이다. 때로는 친척이 아니라도 이웃 집 자제에게도 무료로 수업케 하였다.
- 유지합동서당(有志合同書堂) : 마을의 유지들이 합쳐서 훈장을 초빙하고 교실을 마련하여 자기들 자제에게만 교육시킨 서당이다.
- 촌락(村落) 합동서당 : 마을 전체가 마련했던 것으로 훈장을 모시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친 서당으로 동성(同姓) 마을에 흔했던 것이다.

○ 서당의 교육내용은 강독(講讀 : 읽기) 제술(製述 : 짓기) 습자(習字 : 쓰기) 세 가지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독은 처음에 천자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童蒙先習)·통감(通鑑)·소학(小學)·사서(四書)·삼경(三經)·사기(史記)·당송문(唐宋文) 및 당율(唐律)로 올라갔다. 서당에 따라서는 춘추(春秋)·예기(禮記)·근사록(近思錄)을 읽힌 곳도 있었다.

둘째, 제술은 일반적으로 오언절구(五言絶句)·사율(四律)·십팔구시(十八句詩)·작문(作文) 등을 가르쳤다.

셋째, 습자는 처음에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한자 한자씩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일장(一章)의 대의(大意)를 가르치며 다음 글자를 붙여 소리나게 읽는 것을 가르치고 다음에 구두(句讀)의 문리(文理)를 가르쳐 마지막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풀이하여 읽도록 했다.

특히 강독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였으며, 종일 숙독시켜 훈장과 학생은 그 읽는 수를 세었다. 숙독한 것은 다시 그 다음날 암송시켜 통한 후에야 그 다음을 공부케 했다. 이리하여 학생의 재질에 따라 우수한 자는 빨리 그 학업을 이루었고, 둔한 자는 낙오되거나 늦게 도달했다.

위와 같이 서당이 비록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당시 민중 자제의 문자교육과 국가문화인 유교적 교화에 끼친 영향은 막중했던 점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 후원하지는 안했으나 이를 장려치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효종(孝宗) 10년(1659년)에 제주(祭酒) 송준길(宋浚吉)에게 명하여 서당학규를 개정케 하니, 이것이 이른바 향학지규(鄉學之規)이다.

비록 조선시대의 서당이 자생적인 기초 교육기관이었으나, 국민 대중의 문자교육과 그 마을의 도덕적 예교적(禮敎的)인 고을 풍속을 이루고 순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사회교화로서의 향약(鄉約)을 비롯한 상휼(相恤) 등은 자체 교육의 습속형성에 있어서 서당이 차지한 비중은 가히 중심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오늘에 와서 옛 서당의 훈장들이 행했던 사람과 사람간의 몸소 학문과 진리를 전하고 받고자 한 교육을 다시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스승이란 말이 도통(道統)·학문(學問)·은의(恩義)·인덕(人德)등과 동의어가 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 교육은 본래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함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에 결국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가 아낌없는 성실과 굳건한 신념과 소신으로서 학생과 교사가 대화하는 것이 어떠한 교육 방법

보다 몇 배의 살아 있는 성과를 부르게 된다. 교육은 결과적으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인간적 성장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면 서당 한 가지만 해도 우리에게겐 오랜 우리 나름의 교육체제와 내용을 지녀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계성은 중국 이외의 문명권을 외면해 왔고, 교육내용 역시 유교의 기정(既定) 교과서만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왔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천에 맞는 사상적 전통이나 과학, 기술교육이 부진하게 되었음은 서당교육이 지녔던 국민대중적인 교육적 열의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 기술교육

조선시대 기술교육(技術教育)은 잡학(雜學)이라 했다. 잡학은 천역잡사(賤役雜事)라 하여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우 천시(賤視)하였다.

과학(科學)의 발달은 기술의 향상을 뒷받침하였다. 조선 전기(前期)의 과학은 천문학(天文學)·역학(歷學)·수학(數學)·농학(農學)·천체에 관한 관측, 기후 등 정밀한 관측기의 제작·발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격루(自擊漏), 행루(行漏), 양부일구(仰釜日晷), 현주일구(懸珠日晷), 천평일구(天平日晷), 정남일구(定南日晷),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혼의(渾儀), 간의(簡儀), 혼상(渾象) 등 천문기상 관측기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가운데 자격루는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것으로 세종 20년(1438년) 장영실(張英實)등이 왕명에 의하여 나무로 만든 물시계로 동자(童子) 인형같은 모양이다.

다음은 측우기의 발명인데 측우기는 세종 24년(1442년)에 측우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중앙에는 서운관(書雲觀)에 쇠로 된 것을 설치하여 관원(觀員)으로 하여금 우량(雨量)의 깊고 낮음을 측량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역학(歷學), 의학(醫學), 지리학(地理學)도 크게 발달하였다.

다음은 공장(工匠) 교육을 들 수 있다.

공장(工匠)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으로 구분한다. 경공장은 공조(工曹) 및 봉상사(奉常寺), 내의원(內乘院), 상의원(尙衣院), 군기사(軍器寺)로 되어 있다.

또 직종으로는 능라장(綾羅匠), 초립장(草笠匠)을 비롯한 98종이 있었다. 외장공은 지방관아에 소속된 공장(工匠)으로서 지방별 직종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 지방의 공장은 명부를 만들어 공조(工曹)나 도(道) 또는 관에 비치하였다.

2.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의 교육

가. 개화기의 교육

이조 5백년의 오랜 쇄국정책도 국제조류에는 어쩔 수 없어 고종(高宗) 19년(1882년)에는 구미 제국과 수호조약을 맺고 근대화 지식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동문(同文)학교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세워 자주적 실력을 갖추는데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870년대에 외국과 수교관계를 맺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개화사상이 싹트었다고 본다. 이 결과로 외국의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여 근대문화를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근대식 학교교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86년 정부가 미국인 교사 3명을 초빙하여 세운 육영공원(育英公院)과 미국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培材學堂)·이화학당(梨花學堂)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다.

국가가 제도로서 구교육을 청산하고 현대식 교육을 맞아들인 것은 갑오개혁의 이듬해인 1895년의 일로 이 해에 관립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이 설립되었으며, 상공학교·법관양성소·광무학교·육군유년학당·전무학당 등 실업계통 학교도 세워졌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의 을사조약 체결로 교육의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교육관계 법령도 그들에 의해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당시의 국가위기 의식은 교육구국사상으로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애국지사 또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사립학교가 많이 나타났는데 배재학당을 비롯해서 경신학교·승실중학·한국 최초의 여자교육기관인 정신(貞信)여학교·호수돈(好壽敦)학교·이화학당 등이 기독교 선교사 ‘아펜셀라’와 ‘월드우드’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은 조선사회가 봉건적 전통을 탈피하고 근대 국가로서의 체제를 향한 전환기였으며, 1896년 동학혁명과 함께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문화혁명(文化革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의 과거제도가 철폐되고, 신분에 의한 교육의 제한이 없어지고 사부학당·향교 등의 교육기관이 교육적 기능을 정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1895년 2월에 고종은 반상(班常)을 떠나서 백년대계를 교육에 둔다고 하는 교육입국에 관한 조서(詔書)를 내리게 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교육 없는 나라가 설 수 없고, 옛 사람의 찌꺼기만 쫓는 것이 교육이 아니오 교육의 실체는 덕육(德育)·체육(體育)·지육(知育)에 있다는 새 교육의 대강령 세가지를 지적하고 교육입국의 큰 이상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하여 외국어학교·사범학교·의학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교·상공학교 등이 생기고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처음으로 소학교령이 공포되어 초등교육의 관제가 정하여져 만 8세로부터 15세에 이르는 아동으로서 수업연한은 5년, 고등과 2~3년으로 규정하였다.

중학교는 1899년 중학 관제를 공포하여 수업연한은 7년으로 하되 이를 심상과(尋常科)와 고등과(高等科)로 나누며 심상과는 4년, 고등과는 3년으로 하였다. 조선 총독부 관보에 보면 관립보다 사립학교가 훨씬 많음을 볼 수 있다. 즉, 합방전인 1909년까지 설립된 사립학교는 1,402교가 있었고, 종교계에서는 기독교가 666개교, 천주교가 46개교, 불교가 5개교, 기타 교가 48개교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이 시기에 계속하여 모든 학교의 제도와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학교관제 및 규칙 공포 일람>

학교 관제 및 규칙	공포 연대
○한성사법학교 관제	1985년 04월 16일
○외국어학교 관제	1985년 05월 10일
○성균관 관제	1985년 07월 02일
○소학교령	1985년 07월 19일
○한성사법학교 규칙	1985년 07월 23일
○성균관 경학과 규칙	1985년 08월 09일
○소학교 규칙 대강	1985년 08월 12일
○보조공립 소학교 규칙	1986년 02월 20일
○의학교 관제	1986년 03월 24일
○중학교 관제	1986년 04월 04일
○상공학교 관제	1986년 06월 24일
○외국어학교 관제	1900년 06월 27일
○농상공학교 관제	1904년 06월 08일
	(자료 : 경남교육연감 92년판)

1904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한일의정서를 성립시켰고, 이듬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때 설치된 통감부는 식민지 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법령을 만들어 공포했다.

교육법령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감부 교육법령>

교육법령	공포연도	법령구분
○사범학교령	1906년	칙령 41호
○고등학교령	"	" 42호
○외국어학교령	"	" 43호
○보통학교령	"	" 44호
○고등여학교령	1908년	" 22호
○사립학교령	"	" 62호
○사립학교 보조규정	"	학부령 14호
○공립사립학교 인정규정	"	" 15호
○교과용도서 검정규정	"	"
○실업학교령	1909년	칙령
○실업학교령 시행규칙	"	학부령
○고등여학교령 시행규칙	"	"
○사립학교령 시행규칙	"	"
○고등학교령 시행규칙	"	"
○외국어학교령 시행규칙	"	"
○보통학교령 시행규칙	"	"

통감부는 종전의 학제를 다시 고쳐 초급학년부터 일본어를 필수화시키고, 학교를 고등학교라 개칭하여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과의 단계식 연결을 기할 수 없게 만들어 최종적인 완결교육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전형적인 우민화(愚民化)정책을 펴나갔던 것이다.

나. 일제강점기의 교육

1) 일제교육정책(日帝教育政策)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과 함께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일제(日帝)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일제는 한민족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한국사의 인식체계를 왜곡·조작하였고, 신문·잡지 등 언론매체를 폐지시켜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수십만권의 배일(排日) 민족적인 출판물을 압수하여 태워 버리는 등 식민지 경영을 위한 가혹한 무단(武斷) 통치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무단 통치는 신성한 학문의 보금자리인 학교에까지 뺏쳐 교직원에게 금테를 두른 양복을 입히고 모자를 쓰게 하고 긴 칼을 차게 하였으니 청소년 학생들은 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교사의 모습에서 경찰이나 헌병을 연상하고 공포에 떨게 하였다.

1911년에 발표된 ‘조선교육령’은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기초적 일본어 교육과 최소한의 기술교육만을 한국인에 허용하였으며, 과거의 전통적 기초 교육 기관이던 서당을 강력히 단속하여 90%가 넘는 학령(學齡) 아동을 문맹으로 묶어 놓았다.

초대 총독 사내정의(寺內正毅)는 교육에 대한 방침에 관해 담화를 발표하여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뜻을 발표한 뒤에 “금후 조선 교육은 오로지 유용한 지식과 온전한 덕성을 양성하여 제국신민(帝國臣民)된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서 주안(主眼)을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일제의 한국인 교육방침이 “충성스럽고 어진 제국신민을 기르는데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 점은 새로 제정된 조선교육령 제2조와 제3조에 잘 나타나 있으니, 즉 제 2조는 교육의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忠良)한 국민을 양성함을 본의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는 “교육은 시세(時勢) 및 민도에 적합하게 할 것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들이 이 나라를 병합하여 그 관도의 완전한 일부로 만들고 한국인을 동화(同化)하여 철저한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식민정책의 근본이었던 만큼 밖으로는 무력으로 한국인을 탄압하여 그 반항정신을 꺾고, 안으로는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민족의식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은 일본의 입장으로 보아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며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실업교육에 치중하였을 것이다.

2) 식민지 교육

일본은 한국통치 초기에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부르짖고 한국인을 ‘천황(天皇)의 적자(赤子)’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선전하여 보통교육의 보급을 급선무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에 있어서 병합이래 10년 동안의 학교 실적은 한마디로 식민지화 교육 외에는 없었다. 1912년 학교실황(實況)과 1919년 5월말 현재의 학교 실황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일제의 호언과는 달리 이 기간에 학교의 수가 실제로 줄었다.

즉, 1912년에 1,717개였던 학교가 거의 10년에 달한 1919년에는 1,320개교로 줄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는 103,051명에서 131,973명으로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약 3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교육에 대한 통치자의 성의 부족과 당시 한국인의 일본 통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교육에 대하여 일제의 성의 부족은 당시 일본인 교육 상황과 비교할 때, 즉 1919년 한국인 공립보통학교가 482개교인데 비해 일본인

소학교는 380개교에 달했다. 이들 학생 수를 보면 한국 아동이 84,306명에 비해 일인 아동 수는 42,732명으로 인구가 1천 7백만이었던 한국에 비해 일본인 주민의 수는 약 35만이었으므로 인구비례로 보아 한국 아동의 취학율이 3.7%에 비해 일리아동은 91.5%이다.

둘째, 한국인 대다수는 일본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고 그와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여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일본인화를 피하는 학교를 꺼렸다. 이러한 경향은 이 기간에 서당의 수가 16,540개소에서 23,556개소로 격증되었고, 그 재적생수가 141,604명에서 268,607명으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저들이 한국인의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한국시대에 독립한 부(部)로 있던 학부(學部)를 내무부(內務部)의 한 국(局)으로 격하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셋째, 보통학교의 경우보다 더 비참한 것은 중등교육기관이었다. 관립고등학교의 경우 2개교에서 5개교로 겨우 3개교가 늘고 학생 수는 565명에서 1,705명으로 불어났다.

넷째, 실업교육을 중시하여 그 보급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실업학교의 증가는 겨우 3개교 밖에 없었으며, 간이 실업학교는 19개교에서 67개교로 늘어났지만 그에 수용되고 있는 학생은 1,252명에 지나지 않아 한 학교의 평균 재적학생 수는 20명도 못되는 셈이다.

다섯째, 전문학교는 1915년에 와서야 그 규칙이 제정되어 1919년까지 5개년동안 관립 4개교, 사립 2개교가 늘어났다. 그 내용을 보면 종래의 사립학교인 세브란스와 연희(延禧)가 1917년에 전문학교 인가를 받았으며 관립으로는 1904년에 발족한 농상공학교가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고 1902년 법관양성소로 출발한 경성전문학교가 1916년에 경성 법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899년에 설립된 경성의학교는 1916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로, 1906년에 창설된 공업전습소도 1916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각각 승격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기간 중에 신설된 전문학교는 하나도 없고 모든 기존 시설을 전문학교 규칙에 따라 승격시키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전문학교가 재등(齋藤)총독 때까지 일본인 전문학교와 동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3) 동화를 위한 교육정책

당시 한국사람의 민도(民度)가 일본인 보다 뒤졌음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한국인을

교육적으로 차별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인의 민도가 낮다면 저들이 내세운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정신을 발휘하여 일본인과 같은 수준으로 민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훌륭한 교육시책이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저들이 처음으로 현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한 것은 명치(明治) 5년(1872년) 그때의 일본민도가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1911년의 우리나라의 민도보다 앞선 바 없다. 그러나 일제(日帝)는 그 때 이미 전국을 8개 학구로 나누어 각 학구마다 대학교를 1개씩 두었으며, 소학교 교육연한을 8년, 중학교는 상·하 등을 통하여 6년으로 정하였다가 뒤에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으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교육연한이다. 한국의 문화정도가 낮고 한국 사람의 지능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있어 차별대우를 한 것은 거짓에 불과하며 한 민족에게 교육적 차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정치적 고려이다. 교육의 증가는 욕구의 증가이다.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욕망이 많아지고 교육정도가 높아지면 그 만큼 정신적 욕구가 커진다. 이 정신적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요구가 자유에의 동경이다. 민도가 높아지면 지적 자유를 갖게 되고 정치적 독립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식민지 통치에 있어 피치민(被治民)에게 고등교육을 베푼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단지 지배자의 손발이 되어 그 명령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면 족할 것이다. 일본의 한국인 교육정책은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큰 영향을 받았다.

둘째, 한국민은 열등민족으로 생각하는 자기네 나름의 우월감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점이다. 일본 문화가 지난날 한국의 은혜를 입은 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근대적 과정에서 뒤떨어진 현상만을 보고 한국인을 멸시하는데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과 동등한 교육제도를 실시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을 갖추는데 있어 그러하다. 식민지 국민에게 커다란 교육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넷째, 심리적인 고려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것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한국을 발판 삼아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것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국의 안전 및 제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인적·물적·자원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던 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표방하는 동등한 국민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백성

에게 필요한 교육은 저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데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한국의 교육은 일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정책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론은 우민정책(愚民政策)을 그들의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한다는 구실로 보통학교 4년제, 고등보통학교 4년제(여자는 3년)의 단기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더욱이 교수 용어를 일본어로 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하였으며,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실업교육에 치중하였다. 1922년에 개정된 교육령은 내지준거(內地準據)를 내세워 일본과 같은 초등학교 6년, 중등 5년, 전문학교의 설치 등을 제정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화정책(同化政策)을 한층 철저화하였던 것이다.

1938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표방하여 제도상으로는 학교명칭에서 교육연한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동일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중일 전쟁과 소위 그들의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에 징용·정신대 징발을 행하려는 전초전 작업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식민지 지배수단으로서 교육을 적극 이용하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동화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4) 항일 학생운동

3·1운동은 민족자결과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혼의 발로이며, 국권을 빼앗긴데 대한 총칼에 억눌려 참고 참았던 통분의 절규였다. 3·1독립운동은 한국 역사상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지만 민족의 비원인 독립은 실현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쓰라린 상처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3·1운동에서 부각된 학생들의 항쟁은 국내에 있어서 근대적 학생운동으로 민족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다.

5) 일제 강점기의 교육

일제 강점기의 교육은 1936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남차랑(南次郎)은 교육방침을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이라는 표어 밑에 한인을 일본인화 해서 창씨(創氏)를 시키고 전쟁 완수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즉, 전시동원에 교육이 완전히 봉사하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육 내용은 모두가 전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학생은 학업보다는 전쟁물자의 생산,

군사시설의 건설 등 봉사활동에 연일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끝내 지원병 제도라는 이름 밑에 수많은 청소년들을 전쟁의 희생물로 끌고 간 것이다.

이 시기에 앞서 제 2차 조선교육령은 농업보습학교(農業補習學校) 등 농업계 학교를 증설하였다. 이러한 실과(實科) 교육을 강조한 이면은 인문교육 강화에서 초래되기 쉬운 민족주의 사상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나아가서는 식민지 일차 상품 원료 생산지, 식량 공급장으로서의 경제정책과 결부시켜 조정된 것이다.

제3차 교육령은 교육제도를 인력동원 차출을 위해서 수업연한을 단축하거나 인문계 학교를 전시동원체제 계획에 맞추어 수정 개편하였으며, 학교 명칭도 일본인의 학교와 차별이 없는 동일 명칭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차별 교육은 여전했다. 특히 전시동원 등을 감안하여 각 면에 청년훈련소와 여자훈련소를 개설하였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증가를 불러 1면 1개교를 넘게 되었으나 취학 상태는 광복의 그날까지도 취학율 60%를 넘기지 못하였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도 일부 실업교육, 사범교육의 확충도 약간의 증폭은 있었으나 별다른 성장은 없었으며, 특기할 사실이라면 전시 미곡증산이라는 차원에서 사천농업전수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1944년 학도 동원령에 따라 학도보국대(學徒報國隊)를 편성했으며, 막바지인 1945년에는 전시교육령에 따라 각급 학교는 초등학생마저 연일 노력 동원에 임했으며, 학생 모두가 전시 물자생산,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노력제공, 군사훈련 등으로 사실상 학교는 그 기능이 중단되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을사보호조약에서 착수된 일제의 교육침략은 병합이후 36년간을 민족의 전통성과 능력을 말살하는데 일관하여 우리 민족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약탈당하고 해체당한 불행했던 기간이 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시 설립된 공·사립학교는 다음과 같으나 사립학교는 일제말기 강제 폐교 조치되었다.

6) 일제강점기 학교 설립 상황

1899년 경성의학교를 비롯하여 상공(商工)학교·광무(鑛務)학교·직조(織造)학교·공업(工業)전습소·농업전습소 등의 근대적 기술교육이 탄생하였는데, 우무학당(郵務學堂)·전무(電務)학당의 설립은 이보다 2년 앞섰다. 같은 해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어 1906년 4년제 관립한성고등학교로 승격하였고, 한성고등여학교는 1908년 설립되었다.

1897년 유년(幼年)학교가, 3년후 육군사관학교가 각각 설립되었으나 1909년 7월에 폐지되었다. 국권피탈 당시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36년간 학교교육

전진의 양상은 교육령 개정을 통하여 대강을 살필 수 있다.

교육령은 크게 4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 제2차 개정교육령(1922년), 제3차 개정교육령(1938년), 제4차 개정교육령(1942년) 등과 같이 교육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일본 교육정책의 전환과 사회정세의 즉각적인 반영이었다. 처음에는 되도록 정도를 낮추는데 힘썼으며, 사내(寺內 : 데라우치) 총독의 실용주의를 내건 식민지정책은 재등(齋藤 :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책으로 바뀌고 교육의 연한도 연장되었다. 그 후 ‘내선일체(內鮮一體)·동근동조(同根同祖)’를 내건 결과는 한글 폐지에까지 이르렀으며, 마침내 군국주의적 교육을 지향하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의 배양에 힘썼다.

7) 교육의 선각자들

우리나라의 근대적 학교교육은 188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불붙기 시작했다.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大院君)의 섭정으로 정치적인 혁신이 이루어져 전국의 서원(書院)이 철폐되고 묵은 폐습을 바로잡아 지방적 차별과 계급적 차별을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외국의 새로운 문물(文物)을 들여오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관계가 긴밀하여지더니 급한 것이 외국어였으므로 그 필요성에서 외국인을 초빙하여 세운 것이 육영공원(育英公院)이었다.

이후 서양의 선교사(宣教師)들에 의해 배재학당(培材學堂)을 위시하여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의 사학이 설립되고 조선왕실의 후원을 얻어 양정(養正)학교 등 사립학교들이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이것들은 한결같이 서울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교육은 소외되었다.

따라서 지방의 교육은 몇 사람의 선각자(先覺者)나 독지가(篤志家)들에 의해 신교육운동이 일어나는 실정이었다.

8) 야학 운동(夜學運動)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하자 곧 이어 조선총독부의 무단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우리 민족을 동화(同化)시키는 방법으로 우선 교육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갔던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일제는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이 교육령의

내용인 즉, 우리민족의 말(言語)과 얼(魂)을 말살시키고 일본의 무사정신(武士精神:사무라이 정신)을 주입시켜 보자는 것으로 내선일체니 동근동조이니 하는 황당무계한 언동을 앞세워서 우민(愚民)정책을 펴나갔다.

국어상용(國語常用)이라는 표어를 내세워 일본어를 상용시키는 한편 우리 말과 글을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이라는 부교재(副教材)속에 집어넣었다가 종내는 폐지시켜 버렸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간단없는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였고 우리나라의 국가나 민족의식조차 말살하기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오히려 민족적인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 1919년 3월 1일 거족적인 반일운동이 일어났다. 이 3·1운동만 하여도 반일(反日)사상을 지닌 우리의 청년학생들이 선두에서 몸으로 부딪쳐 항거했던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생이나 민족지도자들이 당시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얼마나 반발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조선교육령이 수차례 개정되어 종전까지 3개면에 1학교를 두던 원칙에서 1927년에는 다시 1개면 1학교로 제도를 바꾸었고 이어 1938년의 3차 교육개정령에서는 학교명을 보통학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개명하는 등 일본과 같은 명칭으로 부르게 하였다.

1941년에는 다시 소학교령을 개정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43년에는 제4차 개정교육령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① 의무교육제의 정비 ② 중학교의 수업연한 단축 ③ 대학중 이과(理科)계의 증원 등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젊은 학생들은 이 시기에 근로봉사의 미명아래 방공호 파기, 방공훈련 등에 동원되면서 일제말기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다.

3. 광복 직후의 교육

가. 해방직후의 교육

1)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 시기(1945~1946)

미군에 의한 직접 통치로 1945년 8월 17일, <일반명령 제4호>로 1945년 9월 24일을 기하여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대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립 초등학교는 개교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일반명령 제 4호>는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교수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였다. 초·중학교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고, 우리말과

글을 쓰게 하고, 일본 역사가 폐지되고 우리 국사가 시행된 점 등 신생국가로의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 교수요목 시기(1946~1954)

이 시기는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령이 나오기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는 교육과정의 개념상 교수요목과 교육과정을 엄밀하게 구분 짓지는 않고 교수요목이란 교과 내용 자체가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과정이며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데 불과 하였다.

이 교수요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 하였다.

둘째 교과는 분과 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 하였으며 일제 잔재를 청산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교육 심의회는 학제를 6·6·4제로 개편하고 학교 교육을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종교육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초등교육은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사범학교 3년으로 하였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하고 1946년에 사범대학을 신설하였다.

교육행정은 중앙의 군정청의 학무국을 1944년 8월 10일 문교부로 승격 시켰다.

그리고 각 도의 교육 행정은 도내무국 소속의 학무과가 1946년 10월 도학무국의 신설로 학무국에 이관되었으나 시군의 교육 행정기구는 여전히 시, 군 내부과장 소관으로 남아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이 되었다.

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고 명시 하였다. 그리고 1949년 12월 31일에는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어 교육제도 개혁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에 6.25전쟁이 일어나 우리 교육은 출발 단계에서 수난을 겪게 되었다.

나. 대한민국의 교육

1) 개관

고대 한국은 중국문화권에 속하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중국을 통하여 전

래된 불교의 영향도 매우 컸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한국 교육사에서는 유교와 불교가 시대변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함께 교육사상(教育思想)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광복 후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지도이념인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군정(軍政) 3년간의 기초 작업을 거쳐서 정부수립 후 1년만인 1949년 12월 31일에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새 교육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문호가 개방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막대한 양적 증가를 초래하였다.

학제는 비민주적인 복선형 제도에서 민주적인 단선형 제도로 바뀌었고, 군정시 6·6·4제와 교육법 제정시의 6·4·3·4제가 1953년 개정교육법에서는 6·3·3·4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하여 중앙집권적 행정제도가 지양되고 지방분권적 행정제도가 확립됨으로써 교육자치제도가 수립, 1952년 시·군 교육위원이 선출됨으로써 자치제가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그 기능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1964년 초에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다시 부분적 자치제가 부활되었고,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역시 민주적으로 개편되었다. 1954년 4월 문교부령 제35호로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의 제정의도는 학생들의 개성차(個性差)를 존중하며 특기활동을 조장하고, 실업교육의 강화와 사회생활과를 중심과정으로 하였으며 민주시민양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신교육과정에 부합되는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국정교과서제도가 폐지되고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채택되었다.

교육사상면에 있어서는 광복 직후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사상이 도입되어 한국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1960년대부터 점차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표어로 자주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유치원 교육의 학제화,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방송대학·개방대학의 확장실시,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확산 등도 실시되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학교가 큰 힘을 가지고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교사가 학교라고 하는 정비된 기관에서 계획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설립된 것은 인간생활의 역사에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며, 더욱이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을 받게 된 것은 불과 최근 100년 사이의 일이다.

학교가 없던 시대, 그리고 학교가 있어도 소수의 특수층만이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던 시대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사회생활에 따라 다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진보하면서 변해 왔으며, 어느 시대에도 같은 모양의 교육이 행해진 적은 없다.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기능 자체는 같지만 그 양상은 사회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모두 통일된 학교제도나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과 대도시, 대도시 가운데서도 주택지역과 상공업지역에서는 각각 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며 동시에 끊임없이 개선·진보하고 있다.

2) 교육제도의 변천

교육제도의 성립에는 각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어 종족·언어·경제·정치·종교 등 여러 가지 조건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의 교육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교육제도로써 파악하게 된다. 또한 교육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학교제도이기 때문에 통상 교육제도는 학교제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3단계로 구분된다. 취학 전 교육은 대개의 경우 초등교육의 일부로 간주되며, 직업교육은 중등교육의 일환이 된다. 또 교원 양성은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종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에 한정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중등교육 단계까지 연장하고 있어 의무교육의 연한은 점차적으로 연장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 경제성장의 영향을 받아, 특히 1960년대에는 교육의 양적 발전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 성과를 배경으로 1970년대는 교육의 질적 향상의 시대라는 의식이 국제적으로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연합은 1970년을 ‘국제교육의 해’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 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22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교육성장의 정책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 전반의 종합적·질적 성장과 관련시켜 교육의 성장을 고려할 것,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것, 교육제도·교육과정·교수법 등을 통하여 개인의 창조성 육성에 초점을 둘 것 등이 논의 되었다.

주요국가의 교육개혁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프랑스가 중등교육 단계에서 1960년 이후 새로이 관찰과정을 실시하여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택하도록 한 일과,

대학의 학원 분쟁을 계기로 1968년에 고등교육기본법을 공포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관리에 학생의 참가를 인정하고, 종래의 학부제를 폐지하여 종합적 학문을 목표로 하는 다학과(多學科) 다교과제(多敎科制)를 실시한 일, 그리고 소련의 제9차 5개년계획에서 10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초등교육과 전·후기 중등교육을 3·5·2제로 변경시킨 일 등이다.

이러한 선진제국의 움직임과는 대조적 입장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등의 국제기관이 여러 경제적·기술적 원조를 하고 있으나 교육발전계획의 실시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교육방침으로는 의무교육 실시계획, 중·고등교육의 확충계획, 인성교육계획 등을 입안하였고 혁신적인 행정조치로 학교차의 철폐, 남녀공학 실시, 입학시험의 개혁, 한자폐지 준비 등을 실현에 옮겼으며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내용의 충실과 개선을 위하여 민주정신에 입각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정했다.

한동안 교과서의 공급, 교육방법 등의 혁신이 큰 과제가 되어 1946년 9월 1일부터 새 교육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 의무교육실시의 제 일보도 이때부터 내딛게 되었으며 1군(郡) 1교(校) 중등학교 신설 및 성인교육의 계획적 실시에 착수하여 문맹(文盲) 퇴치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교사 양성기관으로 각 국립대학에 사범대학이 설립되고 관립 외에 사립사범대학의 출범도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주독립과 함께 교육에서는 보수적 민족교육이 제창되어 새로 제정된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신생국가의 교육적 기반이 확립되었고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매진하게 되었으며 신교육법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아래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케 함을 교육지표로 삼아 모든 것이 원대한 이상과 착실한 실천으로 상승기에 오르려던 차에 뜻하지 않은 6·25라는 민족전쟁이 발발하였다.

한국전쟁 3년간은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일대 수난기였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면서 문화적 후퇴를 최소한으로 막아 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낳은 경제파탄과 피난민의 생활고로 학부형들의 교육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자 정부는 1951년 ‘교육특별지도요강’을 발표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노천이나 유희건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피난 학생은 원주(原住) 학교에 등록하여 수업토록 지시하였다.

교육사상 전례가 없는 교사와 학생이 이산된 대로 가교사 속에서 교육이 계속되었

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민족이 강렬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가를 널리 실증한 것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가치(價値)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行爲)나 그 과정(過程)을 교육(教育 :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이란 한자는 <맹자(孟子)>의 <得天下英才而教育之 :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을 하다>란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글자의 구성면에서 보면 ‘교(敎)’는 매투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육(育)’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된다.

영어의 ‘education’은 라틴어의 ‘educ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빼어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능력을 계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人間愛)로부터 출발하며 상대편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가치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회기능(社會機能)이다.

현대사회에서 학교가 특히 큰 힘을 가지고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교사가 학교라고 하는 정비된 기관에서 계획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설립된 것은 인간생활의 역사에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며, 더욱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을 받게 된 것은 불과 최근 100년 사이의 일이다.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 방침이나 지도 원리를 교육정책(教育政策)이라 하는데 교육정책은 종합적으로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방법·조직·경영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시책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실현과정인 교육행정 가운데서 구체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여기서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학술이나 문화에 관한 행정으로서도 전개된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전개과정에서 행정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정책의 구체화라는 의미에서 여러 성격을 띠게 되고, 교육정책의 규모가 커서 여러 방면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그 결정, 수립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법적 절차의 문제와 정책결정에 누가 참여하느냐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교육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관여하는 체제에서는 교육정책이 교육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책결정에서도 교육행정기관이 크게 작용한다. 정책결정에 있어 실질적 권한이 특정기관으로 집중되는 것은, 집권당의 교육방침과 함께 때로는 정책의 타당성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심의회와 같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생긴다.

한편, 수립된 교육정책은 국민전체를 이끌어 가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는 관계되는 각 단체, 예를 들면 대한교육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정책결정에 있어 각자의 의사를 여론화하여 제기함으로써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반영의 과정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정책의 일반적 유형은 국가의 통치형태와 관련시켜 통제적 교육정책, 자유주의 교육정책, 민주적 교육정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과거의 일본이나 독일에서 볼 수 있었던 엄격한 국가의사(國家意思) 투철형(透徹型)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자유형은 19세기 말까지 영국에서 전형(典型)을 보여온 것으로, 국가는 재정적 보조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교육자체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피하는 방식이다. 민주형은 국가기준에서 대강(大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이나 국민의 노력에 기대하는 유형이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 정신과 제도면에서 민주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는 변천하여 왔다고 본다.

이와 같이 교육의 정책이나 제도는 변천하여 왔는데 복잡한 인간교육 사회 안의 각 장(場)에서 실천·전개되고 있다. 이들 교육실천 가운데 중요한 교육활동은 교회나 개인 또는 해당 단체가 이를 편성·운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각 국가는 그들 나름대로의 학교체계가 있어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체제도 이를 유지·경영에 공비(公費)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교육제도(公教育制度)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국민교육제도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도 제도화하는 정책을 채용하여 그 일부가 국가제도로써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모두 제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정이나 직장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기능은 이를 제도화 할 수 없는데, 지역 사회 사람들이 상호 교육하는 활동은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제1공화국의 교육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고 문교부가 창설되어 새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독립국가로서의 교육행정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고, 1949년 12월 31일에는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교육법 제1조에는 한국교육 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인류공영의 이상구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념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진 민주국가의 제도와 민족의식과 주체성을 고취하려는 의욕에 역점을 두고 민족적 신념을 구현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었다.

군정시대부터 쓰던 교육이념을 새 정부수립 후에도 다시 교육법 제1조에 두어 자주적 생활능력 향상과 공민(公民)의 자질을 함양하여 개인적으로 인격의 완성과 대외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으로서 인류 공영에의 이상 실현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교육법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을 단위로 하는 교육구(教育區)를 두고 시에 시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 도에는 도교육위원회, 중앙에는 중앙교육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의무교육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1960년에는 취학아동이 거의 모두 입학 을 하여 95.3%가 입학 을 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3여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은 제 갈기를 잃고 피난학생은 피난지 소재 각 학교에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교사, 노천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절박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전쟁이 호전됨에 따라 1951년 5월 4일 대한교육에 관한 전시특례조치령을 공포하고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국제집단 안정보장의 인식을 명철히 하여 전시 생활을 지도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전시학 교육특별조치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한편 교육개선을 위한 조치로 중학교의 학제를 6년에서 중학교 3년제와 고등학교 3년제로 분리하고,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한 국가고사제 실시와 1도(道) 1학교의 국·공립대학의 설치에 따라 1952년 10월에 대구(경북대학교), 전주(전북대학교), 광주(전남대학교)에 이어 1953년에 부산(부산대학교), 충남(충남대학교)에 설치하고 1955년에는 충북과 제주도에 각각 국립대학을 설치하였으며 어려운 학교재정을 돕고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단체로 사친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환도하게 되고 교육자치가 실시되어 시·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교육자치가 중단되기도 했다.

4. 교육과정의 변천

가.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문교부령 제35호)를 제정, 공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으로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시기를 교과과정의 시기 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시기라고도 한다. 이때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있기는하나 생활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첫째, 현실생활을 개선 향상 시킬 사회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정부 수립 후 개선 향상 시킬 사회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내용은 적절, 필수 최소량이라야 함을 밝혀 지적 체계와 국가 수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넷째, 반공교육, 동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특별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교육을 지향하였다.

나.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 시기는 1963년 2월 15일(문교부령 제119호)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1973년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시 개정할 때까지를 말한다. 이때 교육과정은 개념을 교과간 비교적 횡적인 관련이 결여된 일군의 교수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개념상 ‘생활 중심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교육과정’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 특징으로

첫째, 교육과정내용면에서 자주성과,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현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과 기술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구체화된 학교 교육의 일반목표로 개인적인 가치의 강조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는 32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 구조적 학습 및 탐구 능력을 중시한 이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받아 들였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적 있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지니고 있다.

제2차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면서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과정의 조직으로서의 브루너(Bruner.J.S)의 주장을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해결력을 기르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과 함께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 협동정신, 국민정신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라.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24호로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종래의 방식을 벗어나 문교부장관이 교육개발원에 개발과제를 위탁하여 기초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의 형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변화라 할 수 있다.

교육개발활동은 보고서를 통해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면서 단일한 교육 사고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3차 교육과정이 지닌 학습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기초 및 일반교육의 소홀, 전인교육 및 인간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 추진,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등을 개정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앞의 교과과정 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정신과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학문적인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교육과정의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마.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초교육의 강화,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미래 사회 대비 교육 강조, 교육과정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개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1987년 6월 30일(문교부고시 제87-9호)로 개정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문서화된 개괄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개념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을 정의하면서 단일한 교육 사고나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 보다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정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가진다.

둘째,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가진다.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초교육의 강화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강화

바.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은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 권한을 확대 하였다.

1992년 9월 30일(교육부고시 제1992-16호)로 개정된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시대적, 학문적, 개인적인 변화와 교육 수요의 요구에 따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의 체제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시·도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인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여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법규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1992년 6월 30일 중학교 교육과정 고시
- 1992년 9월 30일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 1992년 10월 30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6차 교육과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1, 2학년 1996 3월 1일부터 3, 4학년 1997년 3월 1일부터 5, 6학년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교과서와 지도서 등의 교과용도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을 강화하였다.
- 둘째, 저학년의 통합 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셋째, 고학년 수업 시간을 감축하였다.
- 넷째, 생활의 기초 기능과 태도 교육을 강화하였다.
- 다섯째, 학교 재량시간을 신설하였다.
- 여섯째, 산수를 수학과로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 제7차 교육과정기(1998~현재)

1996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교육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에 의한 교육과정 편제를 도입하였다.
- 둘째,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셋째,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 및 구체적 내용제시를 최소화한다.
- 넷째, 교육과정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교육과정 배경요인은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 산업, 취업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재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가 교육과정 중심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책임자의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학문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실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주어지는 교육과정의’의 틀에 안주해 있기 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여 나아가는

의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차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넷째,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다섯째, 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지향하도록 했다.

구성 방침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육성한다.

둘째,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넷째, 교육내용 방법을 다양화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여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한다.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둘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셋째, 재량활동을 신설 확대한다.

넷째, 학습량 최저화와 수준을 조정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한다.

여섯째, 창의성 정보 능력을 배양한다.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기초·기본 교육을 받은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하여 학년 제 개념에 의하여 각 학년별 최소 수업 시간을 제시하였다.

수업 시간 수를 주당 평균 시간 수를 표시하지 않고 연간 최소 시간수로 제시함으로써 교과 특성 학교의 실정 계절 등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편성·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10과목 내외(초등학교)로 감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